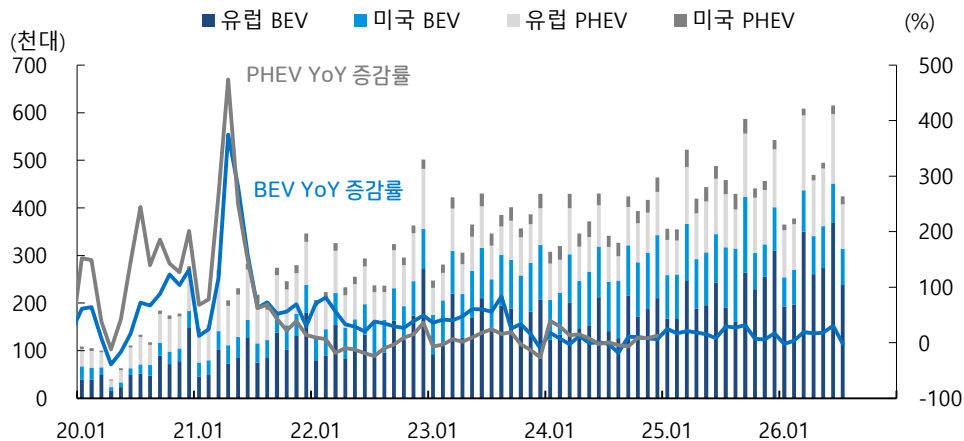




전기차: 유럽 호조세, 중국 수출 압력 증가, 북미 부진 지속

- **7월 전기차 판매량** ▶ 유럽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 독일 BEV 7.6만대(YoY: +57%), PHEV 3.0만대(YoY: +12%), 영국 BEV 4.7만대(YoY: +48%), PHEV 2.5만대(YoY: +37%), 프랑스 BEV 4.8만대(YoY: +115%), PHEV 0.8만대(YoY: -20%), 노르웨이 BEV 0.9만대(YoY: +1%), PHEV 0.1만대(YoY: -479%).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조기 종료 이후 하락세. 6월 BEV 8.1만대(YoY: -19.7%, MoM: -8.0%), PHEV 1.8만대(YoY: -33.7%, MoM: +48.7%). ▶ 중국 7월 판매량 YoY 증감률 성장세 회복.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국 내 휘발유 가격 증가하며 ICE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 7월 전기차(BEV+PHEV) 판매량 145.7만대(YoY: +22.3%, MoM: -4.0%)
- **News** ▶ 7월 유럽 BEV 판매량이 51% 급증하며 침투율 25%를 기록. 프랑스와 독일이 EV 판매량 및 침투율 증가를 견인. EV 침투율은 각각 프랑스 4.4만대에서 35%, 독일 7.9만대에서 29.3%까지 증가. EV 시장은 Tesla가 선두권이나, PHEV 시장은 중국 브랜드 침투율이 34%까지 상승(TNW) ▶ BMW 노이어 클라쎄 본격 양산 시작. 8월 6일부터 뮌헨에서 신형 BEV 모델 i3 생산 진행중. 뮌헨 공장도 2027년부터 BEV 전용 공장으로 전환 예정. 1H26 유럽 내 BMW 판매에서 BEV 비중도 약 28%까지 증가. 이에 따라 유럽 프리미엄 EV 회복 가능성이 일부에서 전망되고 있음(BMW) ▶ 중국 EV 침투율 사상 최고치 기록에도 절대 수요량은 둔화. 중국 7월 NEV 소매는 약 95.1만대(-3.9% YoY)로 역성장 했지만 침투율은 65.1%로 사상 최고치 달성. 수출은 54만대로 +148% 증가하며 중국 OEM 및 배터리 업체의 해외 진출 압력 심화(CNEVPost) ▶ GM-LGES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공장 1월 EV 수요 부진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8월부터 생산 재개. 한편 테네시 공장은 EV 대신 ESS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Investing.com)

미국, 유럽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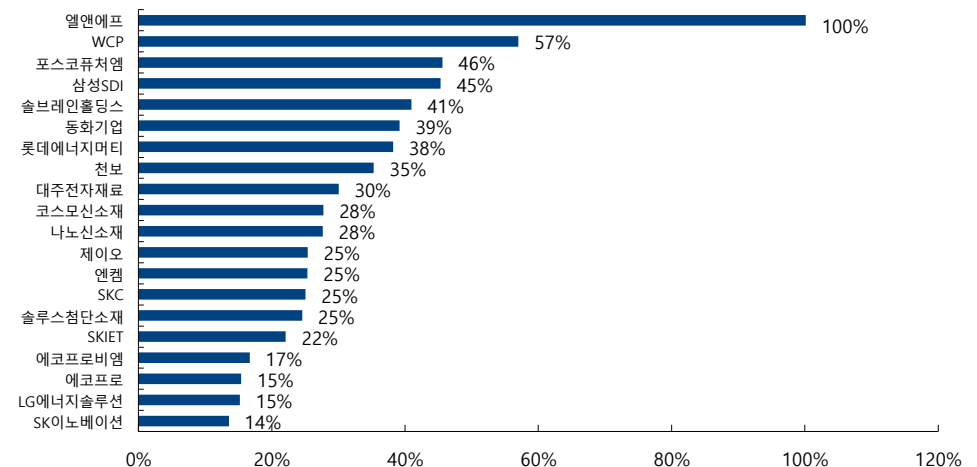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배터리: 2Q26 북미 ESS 배터리 수요 YoY +76% 증가

- **주요 Data point** ▶ 7월 한국 수출 YoY 리튬배터리(ESS 포함) ▲ +7.7%, 양극재 ▲ +15.0%(엘엔에프 ▲ +38.7%), 동박 ▼ -7.9%, 분리막 ▲ +17.0%(WCP ▲ +86.0%), 전해액 ▲ +771%, P전해질 ▼ -81.9%, 리튬(수입) ▲ +200.0% ▶ **2026F Consensus MoM** LG에너지솔루션 ▼ 적지, 삼성SDI ▲ +87.6%, 에코프로비엠 ▼ -62.5%, 포스코퓨처엠 ▲ +17.5%, 엘엔에프 ▼ 적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적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적지, SKC ▼ 적지, 솔루스첨단소재 ▼ -24.4%, 나노신소재 ◎ 0.0%, 대주전자재료 ▲ +27.0%, 천보 ▼ 적지, WCP ▼ 적지 ▶ **8월 원자재 가격 MoM** 리튬 ▼ -1.9%, 니켈 ▲ +0.7%, 코발트 ◎ +0.0%, 망간 ▲ +0.2%, 알루미늄 ▲ +3.0%, 구리 ▲ +6.1%. NCM 양극재(中 현물가) ▼ -0.5%, LiPF₆(中 현물가) ▲ +9.5%
- **News** ▶ 1H26 ESS 배터리 출하량 고성장 지속. 글로벌은 461.3GWh(+71% YoY), 북미는 75.9GWh(+83% YoY) 기록. LGES, 삼성SDI 양사의 점유율은 20%까지 증가(SNEResearch) ▶ LGES, 8월 19일 미시간 랜싱 공장 본격 가동 시작. 연산 캐파는 35GWh 이상이며 EV용 NCM과 ESS용 LFP를 동시에 생산할 계획(조선일보) ▶ SDI, 시너지셀즈(GM JV) 지분 전량 인수. 이로써 해당 인디애나 공장은 삼성SDI의 첫 북미 100% 단독 생산법인이 될 예정. 공장 완공 후 ESS 배터리부터 우선적으로 생산할 계획. 8월 21일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5%를 4.45조원에 매각하면서 대규모 투자 여력도 확보(동아일보) ▶ SKIET,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 예정. 11월 2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의결된 후 27년 1월 1일에 최종 합병될 전망(디일렉) ▶ SK온, 북미 ESS 기업 Neovolta와 9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LFP 파우치 배터리 셀을 공급할 예정(연합인포맥스) ▶ 삼성SDI, Sungrow향으로 LFP ESS 배터리 공급계약 4Q26 중에 마무리할 계획. 규모는 약 수조원에 해당할 전망(디일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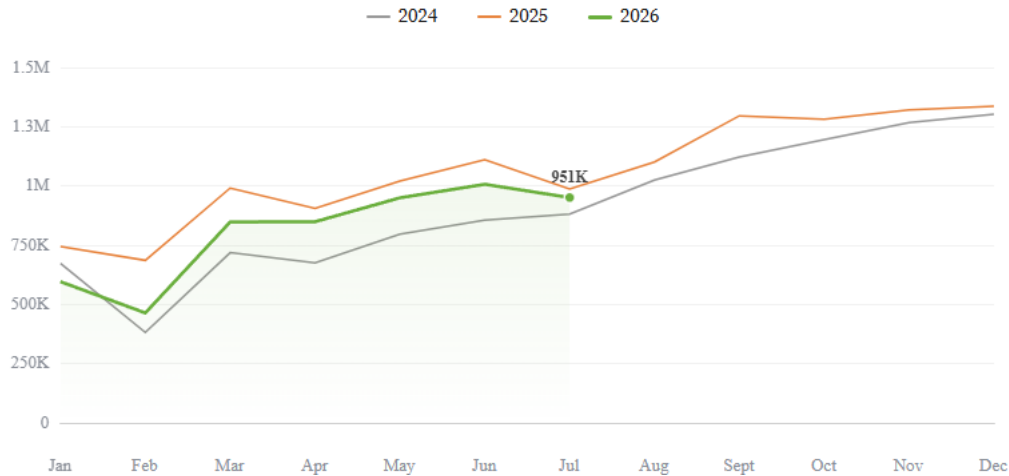
이차전지 업종 주가 MoM 상승률



자료: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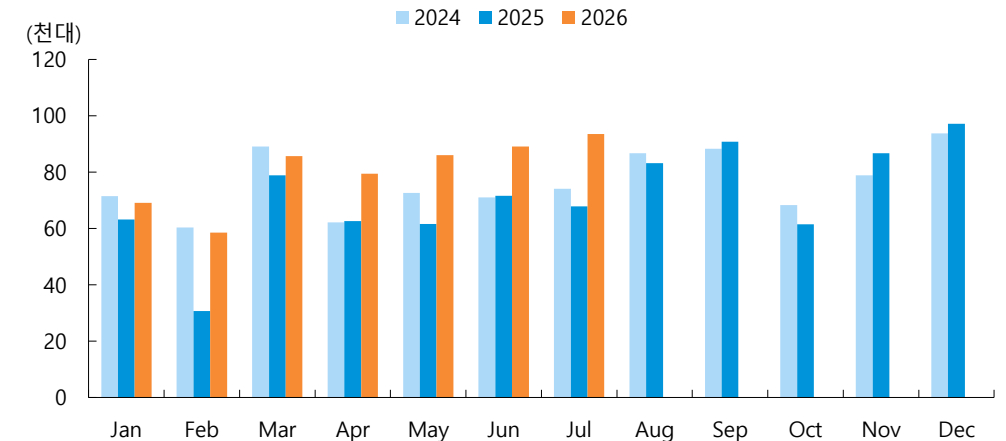
- 2026년 7월 전기차 판매량: 유럽 전기차 회복세 지속, 미국 전기차 둔화세 장기화, 중국 전기차 전년 대비 소폭 둔화

중국 친환경 승용차 7월 판매량: 951.0만대(YoY: -3.9%, MoM: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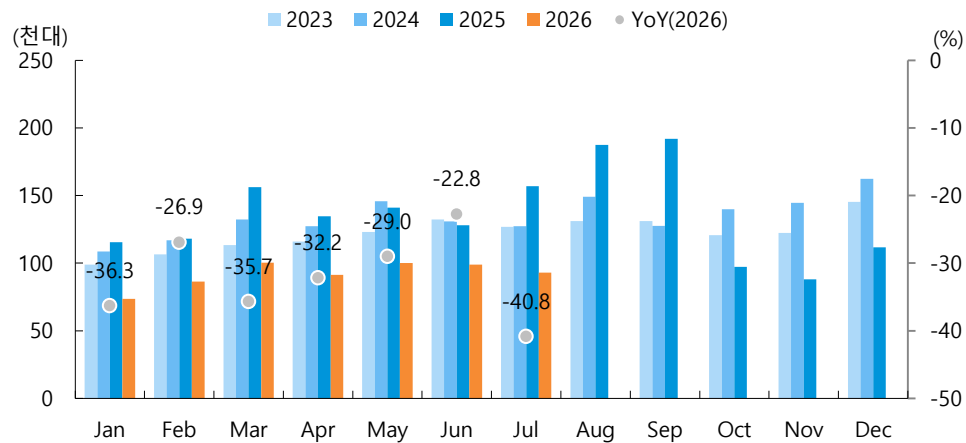
자료: CNEVPOST, iM증권

중국 생산 Model 3, Model Y 6월 출하량(내수 판매+수출): 9.4만대(YoY: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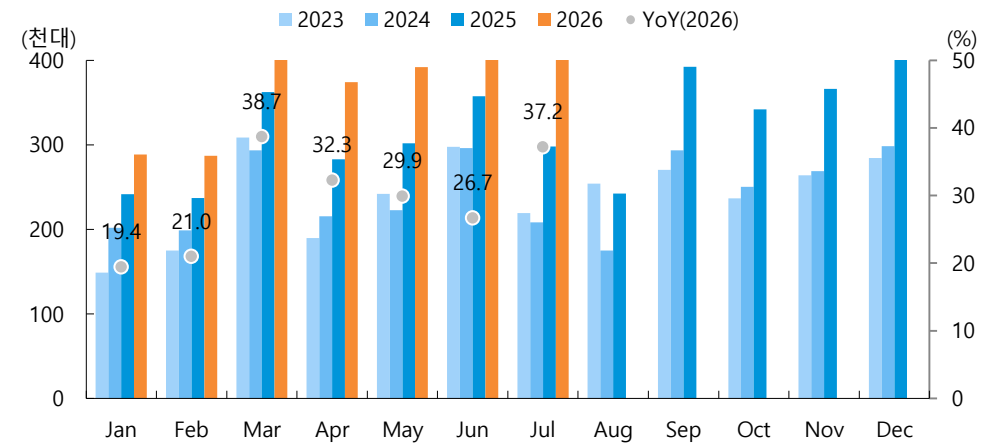
자료: CPCA, iM증권

미국 월별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7월 YoY 증감률 -40.8% 기록



자료: Marklines, iM증권

유럽 월별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7월 YoY 증감률 +37.2% 기록



자료: ACE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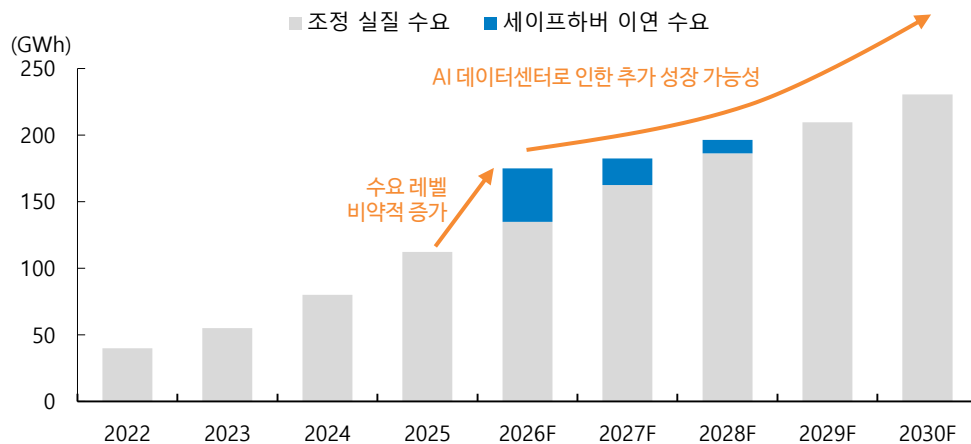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 76GWh(+83% YoY) 기록

- 최근 전세계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 시장조사기관인 SNER리서치에 따르면 1H26 전세계 ESS 배터리 출하량은 461GWh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1% 증가. 이 가운데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76GWh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증가. 분기별로는 1Q26에 35GWh(+91% YoY), 2Q26에 41GWh(+76% YoY)를 기록

- 2H26 출하량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에 그치더라도 연간 출하량은 152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 통상 하반기에 출하가 집중됐던 계절성을 고려하면 올해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150GWh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배터리 셀 업체(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들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북미 ESS 수요 성장률 예상치 10% 초반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전망. 다만 올해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에는 세이프하버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연 수요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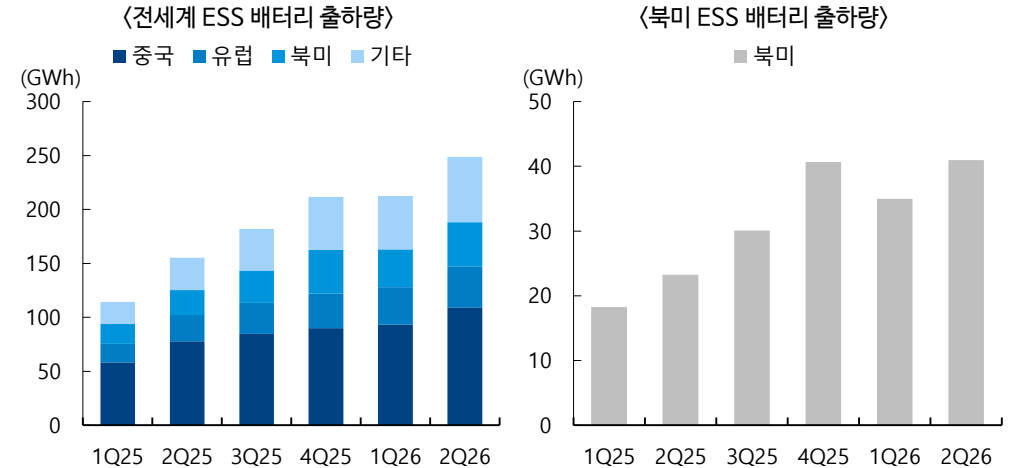
-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상승 중. 1H26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각각 10GWh, 5GWh 수준 기록. 양사 합산 출하량은 전년 동기 약 6GWh에서 약 15GWh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약 159% 기록. 합산 시장점유율도 14%에서 20% 수준으로 상승. 중국 업체들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PFE 관련 공급망 규제가 본격화될수록 미국 내 생산능력과 비PFE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

북미 ESS 배터리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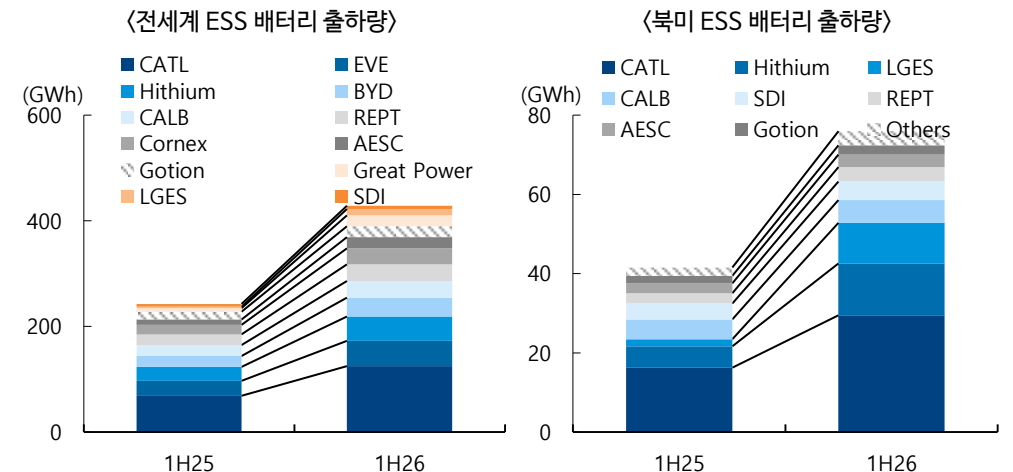
자료: SNER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지역별 ESS 배터리 분기별 출하량



자료: SNER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업체별 ESS 배터리 출하량



자료: SNER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AIDC의 급격한 전력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 설비의 잦은 고장, 신규 AIDC 뿐만 아니라 기존 AIDC에도 ESS 설치 필요성 부각

-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GPU가 동시에 가동과 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부하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나타냄. 이러한 부하 변동은 발전기와 가스터빈, 배터리, 냉각설비 및 각종 전력기기에 반복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해 설비의 고장 가능성을 높이고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설비 고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장비 교체 비용보다 고가의 GPU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전력 품질 확보의 중요성 부각

-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부하 변동을 흡수하고 발전설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용량 ESS와 전력완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 특히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변동으로 인한 설비 고장과 수명 단축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SS의 필요성은 향후 건설되는 신규 AI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전력 인프라 보강 과정에서도 부각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

AI 전력 수요의 급격한 변동,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를 손상시키는 문제 발생



View this article online: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international/2026/08/12/881044.htm>

AI's Volatile Power Demand Is Damaging Its Own Data Centers

Rapid swings in AI data centers' power demands are straining vital equipment, causing batteries, generators and cooling systems to malfunction or wear out far sooner than expected.

As the AI boom accelerates, these technical problems suggest added costs and unforeseen reliability problems, with even a few minutes of lost uptime hitting data-center developers' revenue. They come at a time when investors and lenders are already jittery about hyperscaler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spending, amid growing concerns that these facilities could be depreciating much faster than estimated.

The problems are also a potential source of wider instability in power grids that are already straining to keep the lights on.

"AI does create very unusual power demand," said Amber Villegas-Williamson, principal consultant at the Uptime Institute in the UK, which advises electricity suppliers and data centers on standards and reliability. "It's like over-revving your car wears out the engine faster than keeping a constant speed."

Data centers have been around for decades, gulping down electricity while they ensure that everything from your favorite streaming show to your online grocery order functions smoothly. But facilities designed for AI computing are different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전환 더욱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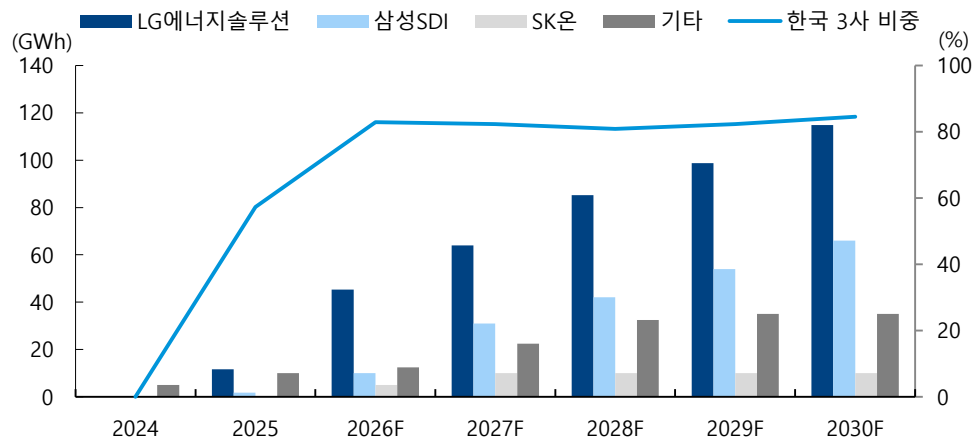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다수의 EV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 변화에 맞춰 ESS 생산라인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큼.** 북미 5개 생산거점에서 기존 EV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5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7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최근 북미 ESS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이후에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라인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실적 컨센서스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전망

- **반면 삼성SDI는 2027년 말 약 30GWh 규모의 ESS 생산능력을 확보한 이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상황.** 이 가운데 삼성SDI는 지난 8월 11일 공시를 통해 GM이 보유한 SDI-GM Synergy Cells Holdings 지분을 전량 인수해 GM과 추진해 온 배터리 합작투자를 종료하고 해당 법인을 단독 소유 체제로 전환할 계획. 이번 거래의 핵심은 삼성SDI가 북미에서 처음으로 단독 소유하는 대형 배터리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것.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Synergy Cells 공장은 단독 소유 전환 이후 ESS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해 빠르게 증가하는 북미 수요에 대응할 예정.** 실제로 삼성SDI는 2Q26 실적 발표에서 기존 미국 ESS 수주만으로도 2029년까지 계획된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채운 상태라고 언급. 또한 협의 중인 프로젝트까지 포함할 경우 2028년부터 수요가 생산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생산능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임을 밝힘. 또한 투자 자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5%가량을 삼성디스플레이 자기주식 형태로 약 4.45조원에 매각할 예정

- Synergy Cells 공장의 단독 소유 전환은 이러한 생산능력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공장 가동과 고객 인증 일정을 고려하면 2028년을 전후해 ESS 생산라인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결정은 미국 EV 수요 둔화에 대응한 생산구조 재편인 동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 삼성SDI는 기존 ESS 수주잔고와 신규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2028년 이후 북미 ESS 매출 성장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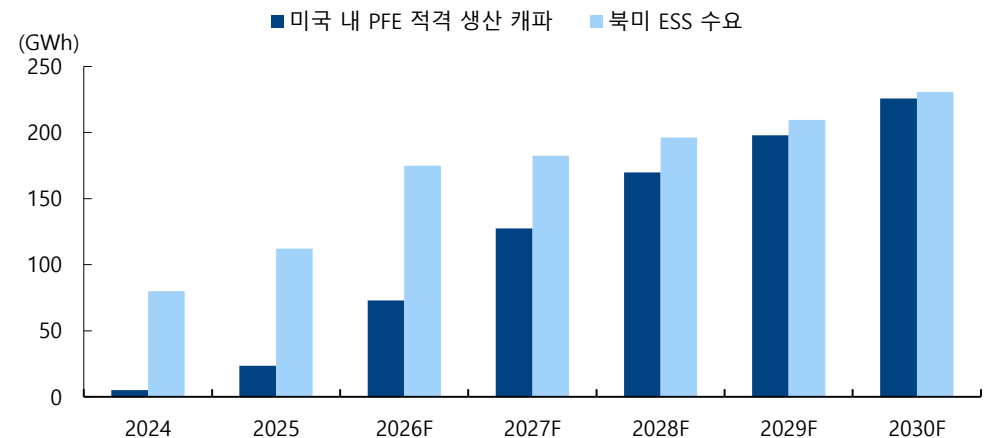
-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북미 수요 대비 PFE 적격 생산능력의 공급은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여기에 AMPC 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사업 영업이익률은 1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

미국 내 PFE 적격 생산 캐파 전망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3Q28, 3Q29, 3Q30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각각 1개 라인 확대 가정

북미 ESS 수요와 PFE 적격 생산 캐파 비교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3Q28, 3Q29, 3Q30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각각 1개 라인 확대 가정

미국,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행정명령 - 사실상 중국산 설비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

- 지난 8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력망에 사용되는 외국산 장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4420호(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에 서명.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특정 외국산 대규모 전력계통 전기설비(Bulk-Power System Electric Equipment)의 취득, 수입, 이전 및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 규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69kV 이상 송전망과 대규모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발전설비 및 제어시스템이며, 지역 배전망은 제외

- 규제 가능 대상에는 원자로, 변압기, 발전기, 발전용 터빈, 고압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등 전통적인 전력망 핵심 설비뿐만 아니라 BESS, 계통연계형 인버터 및 산업제어시스템도 포함. 이는 이번 행정명령이 개별 전력기기의 원산지 규제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통신, 제어 기능을 포함한 전력망 공급망 전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의미.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산 전력설비의 공급망 및 사이버보안 위협을 규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산 전력설비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조치로 판단

-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DOE)는 해당 장비와 관련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펌웨어, 디지털 서비스 및 원격접속 기능 등이 규제대상 외국기업(Covered Foreign Entity)의 소유 및 통제 또는 관할 아래 있는 기업에 의해 설계, 개발, 제조, 공급됐는지를 검토할 예정. 이를 통해 해당 장비가 미국 전력망 교란, 무단접근, 원격조작 및 공급중단을 유발하거나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거래와 설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가능. 향후 미국 에너지부는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실제 규제 강도는 어떤 국가와 기업을 규제대상 외국기업으로 지정하고, 어떤 장비와 부품을 국가안보상 위험 품목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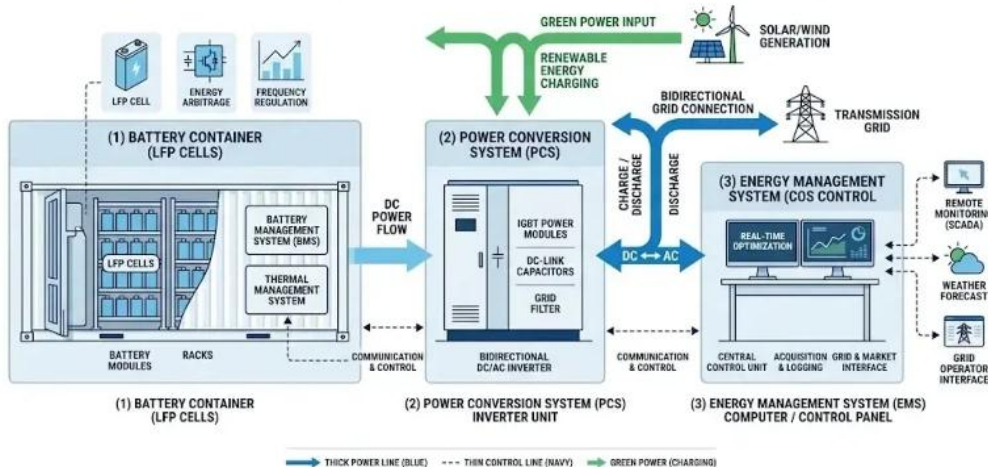
-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BESS가 규제 가능 전력기기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는 점. ESS가 단순한 에너지 저장장치가 아니라 BMS가 배터리 셀의 상태와 안전을 관리하고, PCS와 인버터가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망에 동기화하며, EMS와 사이트 컨트롤러가 충·방전 및 계통서비스를 지시하는 복합 전력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점을 반영. 원격 유지보수와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제3자 계정 탈취, 악성 펌웨어 설치 및 다수 장비에 대한 동시 원격제어 등의 사이버공격 위험도 존재. 따라서 향후 규제 범위는 배터리 셀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PCS, 인버터, BMS, EMS, 통신장비 및 원격제어 서비스 등 BESS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ESS 구성 요소별 배터리 셀, SI(System integrator) 업체들의 역할 비교

구분	주요 구성요소	주요 기능	공급 영역	배터리 셀 업체	SI 업체	비고
저장부	셀, 모듈, 랙, 컨테이너	전력 저장, 저장 용량 결정	배터리 셀, 모듈 랙, 컨테이너	●(핵심 사업영역)	○(조달, 통합)	셀 업체가 셀 → 모듈 → 랙 → 컨테이너까지 공급 (일부 고객사향의 경우 배터리 셀 공급)
전력 변환	PCS, 인버터, 변압기	DC/AC 변환, 출력 제어, 계통 접속	PCS, 인버터, 변압기	△(일부 업체)	●(핵심 사업영역)	SI가 PCS 업체 제품을 선정·통합하거나 자체 PCS 보유
제어 시스템	BMS, EMS, SCADA	배터리 상태 관리, 충방전 제어, 운영 최적화	제어 소프트웨어, 통신/데이터 시스템	●(BMS 중심)	●(EMS, SCADA 중심)	BMS는 셀 업체, 상위 시스템 제어는 SI 역할이 일반적
안전 시스템	열관리, 화재 감지·소화, 환기	과열 및 화재 리스크 관리, 설비 보호	열관리 장비, 소방/안전 설비	○(배터리 시스템 내부)	●(전체 시스템 통합)	셀/랙 내부 열관리와 BM는 셀 업체, 사이트 전체 시스템은 SI
계통 접속 장비	차단기, 보호계전기, 케이블, 접속반	전력 보호, 접속 안정성 확보	전력기기, 배전 및 변전 부품	△	●(핵심 사업영역)	전력기기 업체와 SI/EPC가 주로 담당
운영 관리	원격 모니터링, 성능 진단, 유지보수 SW	장기 성능 관리, 고장 대응, O&M 지원	운영 소프트웨어, 진단 솔루션	○(배터리 상태진단)	●(핵심 사업영역)	SI가 전체 ESS 성능, 운전, 유지보수 관리

- 현재 행정명령에는 BESS가 규제 가능 전력기기로 명시돼 있지만 배터리 셀 자체는 별도 품목으로 포함돼 있지 않음. 따라서 향후 핵심 변수는 미국 에너지부가 BESS의 '핵심 부품'을 어디까지 규정하는지 가 중요. 다만 이번 행정명령과 별개로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산 ESS용 배터리의 입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OBBBA에 포함된 금지외국기업(PFE) 규제에 따라 2026년부터 착공하는 ESS 프로젝트는 비 PFE 공급망 비중을 의미하는 MAC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섹션 48E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ESS 프로젝트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사업 경제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할 유인은 크게 약화
- 반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당수 ESS는 BMS, PCS 및 인버터 가운데 일부를 중국산 장비나 부품에 의존. 특히 미국 내 인버터의 약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 이들 장비는 배터리의 충, 방전과 전력변환, 계통연계 및 원격운동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보다 사이버보안 위험과의 연관성이 큼. 이를 고려하면 행정명령 시행 초기에는 배터리 셀보다 원격접속 기능, 플릿 제어 시스템, PCS, 인버터 및 BMS 등 전력계통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규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특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계 ESS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사업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될 전망. 2025년 기준 중국 Sungrow는 북미 ESS SI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 SI 업체는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된 컨테이너와 PCS, 인버터, 변압기, EMS 및 스위치기어 등을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이 전력망과 연계돼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특히 SI 영역은 통신망과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백도어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이버안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향후 세부 규정에서 중국계 기업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안보 위험 요인으로 분류될 경우 Sungrow의 미국 내 신규 주주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른 공급 공백은 Tesla, Fluence Energy, FlexGen, Wärtsilä 등 비중국계 SI 업체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위험 판단에 따라 사용 중단이나 해체 및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최악의 경우 기존 중국계 SI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을 비중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반면 규제 범위가 BESS 컨테이너 또는 통합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거나 중국계 SI 업체가 담당하던 신규 프로젝트가 비중국계 공급망으로 이전될 경우 비PFE 공급망과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전력망 계통연계형 ESS 구조



주요 국가별 ESS SI 업체 시장 점유율 현황(2025년 기준)

Global energy storage system integrator market share



Source: Wood Mackenzie, Note: The market share calculation is based on integrators' AC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shipment numbers in 2025.

ESS 중심 이차전지, 전력 인프라 산업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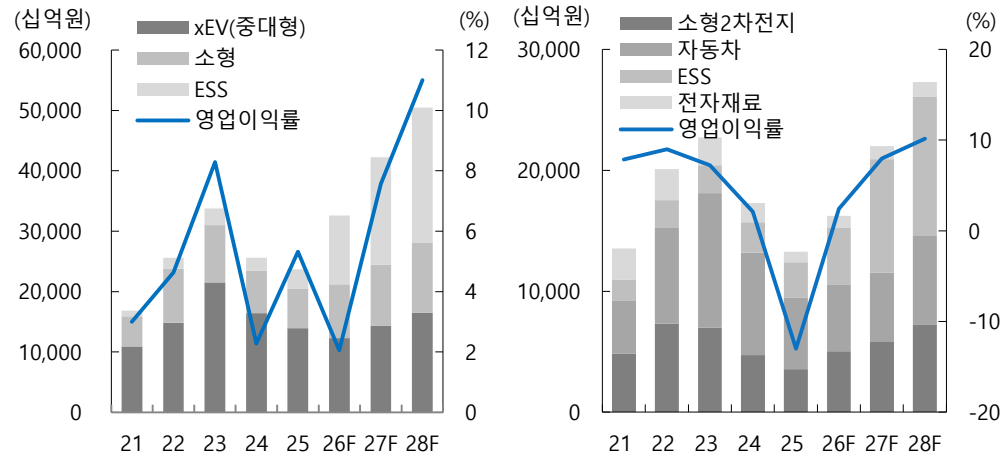
-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2026~2027년 유례없이 강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그 동안 메모리 업종에 집중됐던 수급이 점차 분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전력기기와 이차전지 등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확산**

- 주요 섹터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중장기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국내 이차전지 셀 업체들의 2028년 예상 실적 기준 평균 P/E는 25.4배 수준으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차전지 업종이 2020년 이후 구조적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아 왔다는 점과 2028년에도 주요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EPS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

- 향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북미 ESS 신규 수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내 ESS 수요 증가에 대응한 생산라인 전환과 가동률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고정비 부담 완화와 AMPC 효과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2028년 약 10% 전후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이차전지 셀 업체들의 평균 이익 증가율은 약 70.3%에 달할 전망이다.** 당사는 2027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영업이익이 각각 378%, 344%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는 2026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2028년에도 양사의 영업이익이 각각 74%,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의미가 다름. Bloomberg와 Quantwise 컨센서스 기준 2028년 EPS 성장률 역시 LG에너지솔루션 85%, 삼성SDI 56%로 전망. 이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적자 축소에 그치지 않고, ESS 매출 확대와 생산설비 가동률 상승,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이익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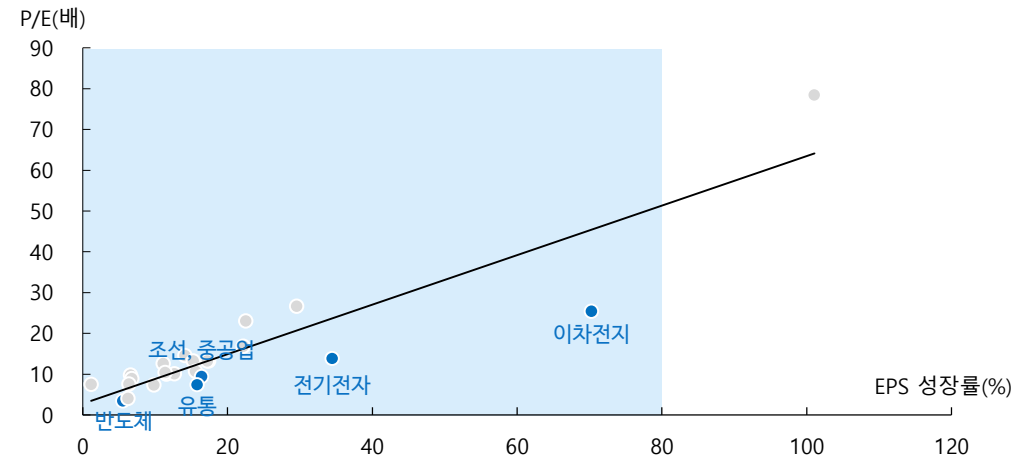
- 2020~2023년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확대와 장기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핵심 동력. 당시에는 장기 수주잔고와 생산능력 증설 계획을 중심으로 높은 멀티플이 형성됐으나, 실제 실적은 완성차 업체의 EV 전략, 보조금 정책, 원재료 가격, 재고 조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변동. 반면 현재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중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EV 중심의 성장 사이클과 차이 존재. **특히 ESS가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저장장치를 넘어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차전지 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역시 기존 EV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력 인프라 산업의 관점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iM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섹터 시가총액 상위 업체 평균 P/E와 EPS 성장률 비교(2028년 기준)



자료: Bloomberg, Quant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이차전지 투자 매력도 점검

섹터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수익률 (%)		EPS 성장률 (%)			P/E (배)			P/B (배)			
			1개월	YTD	1년	26F	27F	28F	26F	27F	28F	26F	27F	28F
반도체	삼성전자	1,464,493	-3.3	108.1	259.4	636.3	43.9	3.6	5.3	3.7	3.6	2.3	1.5	1.1
	SK하이닉스	1,179,745	-6.0	147.7	500.4	480.1	30.1	7.5	4.7	3.6	3.4	3.1	1.7	1.1
전기전자·스마트폰	삼성전기	102,853	20.6	438.9	757.9	115.6	99.9	58.4	70.4	35.5	22.8	9.7	7.7	5.9
	LG전자	32,577	26.0	117.4	170.6	146.3	17.3	26.0	15.5	13.1	7.7	1.4	1.2	1.0
	LG이노텍	14,555	22.0	126.9	263.7	169.0	20.0	19.0	15.9	13.2	11.1	2.2	1.9	1.6
	LG에너지솔루션	88,335	16.3	2.0	7.2	적자지속	흑자전환	84.9	-	52.9	28.0	4.2	3.8	3.3
자동차·타이어	삼성SDI	47,062	49.0	115.9	182.1	흑자전환	120.9	55.6	76.6	35.4	22.8	2.0	1.9	1.7
	현대차	81,186	3.5	33.5	80.2	11.8	13.9	9.1	10.1	8.8	8.1	0.8	0.8	0.7
	기아	49,934	-1.0	5.2	20.9	14.1	9.7	7.8	5.9	5.4	5.0	0.7	0.7	0.6
	현대모비스	40,464	-4.4	20.6	41.4	14.8	13.3	7.1	9.8	8.6	8.0	0.8	0.7	0.7
조선·중공업	HL만도	2,329	11.0	-15.9	38.9	99.4	21.3	15.2	11.8	9.7	8.4	0.8	0.8	0.7
	HD현대중공업	46,655	-5.3	-11.9	-12.9	95.5	16.1	16.8	14.8	12.7	10.9	4.0	3.3	2.7
	HD한국조선해양	24,700	-8.2	-14.4	-14.1	79.4	20.2	14.9	6.4	5.3	4.7	1.6	1.3	1.1
	한화오션	26,321	1.8	-24.5	-23.3	57.7	3.2	13.5	13.5	13.3	11.7	3.2	2.6	2.1
방산·우주·기계	삼성중공업	18,304	-2.1	-14.0	-2.3	72.3	55.9	20.3	19.3	12.4	10.3	3.5	2.7	2.2
	한화에너지시스템	59,762	27.5	21.7	31.1	60.9	23.5	12.5	25.2	20.2	18.2	4.9	4.1	3.4
	LG디펜스엔지니어링	15,829	4.0	69.5	47.0	43.6	42.4	33.7	43.1	30.8	22.7	9.1	7.3	5.7
	현대로템	14,985	4.3	-27.3	-28.5	16.6	27.7	25.7	16.7	13.1	10.4	3.8	3.0	2.4
통신	한국항공우주	12,740	3.1	14.3	37.3	39.0	68.3	30.6	50.6	29.9	23.0	6.3	5.4	4.5
	한화시스템	13,904	19.9	35.3	44.6	-44.7	199.5	29.6	106.1	35.2	27.4	2.6	2.4	2.2
	풍산	5,933	4.9	7.8	17.4	90.8	-11.6	8.7	8.1	9.1	8.5	0.9	0.9	0.8
	두산밥캣	2,348	19.7	-21.8	-29.5	38.2	19.0	14.6	10.7	9.1	7.9	0.8	0.7	0.7
전력기기	두산에너지밸리티	54,063	26.2	11.3	36.8	294.4	76.0	41.2	165.3	93.2	65.9	6.6	6.1	5.6
	LS ELECTRIC	30,525	11.6	118.6	257.6	87.2	43.4	29.3	58.6	41.0	31.7	12.6	9.7	7.9
	HD현대일렉트릭	28,297	14.9	0.8	59.4	30.1	27.1	22.6	29.9	23.6	19.5	10.6	8.0	6.2
	효성중공업	28,179	24.3	68.8	143.7	51.5	44.5	32.9	35.9	25.0	18.9	9.2	6.9	5.2
통신	대한전선	5,703	25.4	27.1	85.7	6.3	85.8	28.1	59.6	32.9	25.6	3.3	2.9	2.6
	가온전선	6,194	55.2	349.5	523.0	98.9	106.6	39.8	59.1	28.6	19.9	10.3	7.6	5.5
	일진전기	3,376	36.7	30.1	95.3	74.7	13.9	13.9	18.7	16.5	14.5	4.6	3.7	3.0
	산일전기	6,027	37.8	51.2	75.9	42.0	28.7	28.7	28.5	22.1	17.0	8.1	6.2	4.8
인터넷·소프트웨어	SK텔레콤	19,986	14.2	73.9	71.7	231.7	4.2	6.5	15.7	14.9	13.9	1.5	1.4	1.3
	KT	13,534	3.5	2.3	-0.7	-16.6	8.1	6.5	9.3	8.6	8.1	0.7	0.7	0.6
	LG유플러스	6,337	1.2	0.9	0.5	42.3	11.2	6.9	8.8	7.8	7.3	0.7	0.7	0.6
	NAVER	32,468	3.6	-12.3	-0.5	-1.3	15.4	14.9	17.4	15.1	13.1	1.1	1.0	1.0
게임	카카오	16,080	-2.9	-39.6	-41.9	23.6	46.6	13.3	27.2	18.1	16.1	1.4	1.3	1.2
	크래프톤	10,133	-8.3	-9.6	-31.8	30.5	28.1	9.8	11.1	8.6	7.9	1.3	1.1	1.0
	NC	4,804	-3.9	10.9	9.9	30.0	5.8	5.0	10.3	9.8	9.3	1.2	1.1	1.0
	넷마블	3,073	-3.0	-23.6	-38.3	117.8	-38.9	8.3	6.5	10.1	9.4	0.5	0.5	0.5
제약·바이오·의료기기	풀어비스	1,976	-6.0	-16.0	-3.8	흑자전환	-60.7	23.3	6.2	16.6	13.4	1.7	1.6	1.4
	삼성바이오로직스	67,770	-0.9	-13.7	1.5	30.3	14.9	14.6	36.7	31.4	27.8	7.0	5.8	4.8
	셀트리온	43,592	0.8	9.1	17.9	54.3	16.9	14.0	28.4	24.3	21.3	2.3	2.1	1.9
	알테오젠	20,862	24.8	-13.6	-11.1	101.4	42.4	36.8	78.2	53.8	40.3	30.9	20.1	13.6
유통	SK바이오팜	6,657	7.9	-31.9	-13.8	19.9	24.9	31.6	21.3	17.1	13.0	6.0	4.5	3.3
	유한양행	6,059	12.4	-26.9	-27.5	-17.8	40.7	42.4	40.0	28.5	20.1	2.6	2.5	2.2
	한미약품	6,092	43.9	5.4	56.9	54.4	-10.1	-1.6	23.4	26.9	27.5	4.1	3.6	3.3
	HLB	4,729	16.6	-30.9	-6.0	-	-	-	-	-	-	-	-	-
AI·로보틱스	에이비엘바이오	3,970	5.8	-64.3	-22.6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	-	-	37.9	139.5	35.8
	파마리서치	4,660	32.1	10.6	-34.0	28.5	22.1	18.2	23.0	18.9	15.9	6.0	4.8	3.8
	삼천당제약	3,807	9.2	-30.3	-15.6	-	-	-	-	-	-	-	-	-
	리가캠퍼바이오	3,469	7.6	-45.6	-36.4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	-	-	7.1	8.1	6.9
엔터테인먼트	휴켈	3,141	7.5	8.7	-20.4	16.6	26.9	24.3	18.0	14.2	11.3	2.5	2.1	1.8
	클래스스	2,192	-17.8	-38.7	-35.3	17.8	29.7	22.6	14.3	11.0	8.9	3.4	2.8	2.2
	레인보우로보틱스	8,604	4.2	-5.4	62.2	605.5	430.5	115.1	884.6	166.9	77.6	61.9	45.1	28.5
	두산로보틱스	4,518	13.1	-10.6	11.5	-	-	-	-	-	-	14.5	15.1	14.8
유통	로보티즈	3,549	32.3	-7.3	173.4	-19.8	397.3	87.0	2,007	149.8	79.3	10.5	9.8	8.8
	하이브	7,557	4.2	-47.8	-38.8	흑자전환	97.8	17.9	37.1	19.3	16.9	2.2	2.0	1.8
	JYP Ent.	1,391	-9.3	-47.8	-46.1	-26.7	9.3	2.4	11.6	10.6	10.3	1.9	1.6	1.4
	에스엠	1,687	7.1	-47.4	-46.9	-64.3	19.3	13.0	13.9	11.7	10.7	1.6	1.4	1.3
유통	신세계	3,868	-2.8	65.1	147.7	2,771	14.9	10.7	9.4	8.3	7.5	0.7	0.7	0.6
	롯데쇼핑	2,925	-11.2	42.6	56.4	544.7	21.7	16.8	8.6	7.0	6.1	0.2	0.2	0.2
	이마트	2,016	-20.9	5.5	25.8	-36.3	161.9	24.5	29.9	10.5	8.4	0.2	0.2	0.2
	현대백화점	2,059	-5.8	-8.1	4.3	32.2	26.1	12.3	7.5	6.0	5.3	0.4	0.4	0.4
유통	호텔신라	1,715	0.5	-2.7	-6.8	흑자전환	41.0	14.7	16.0	11.3	9.8	1.4	1.2	1.1

자료: Bloomberg, Quantwise, iM증권리서치본부

이차전지 투자 매력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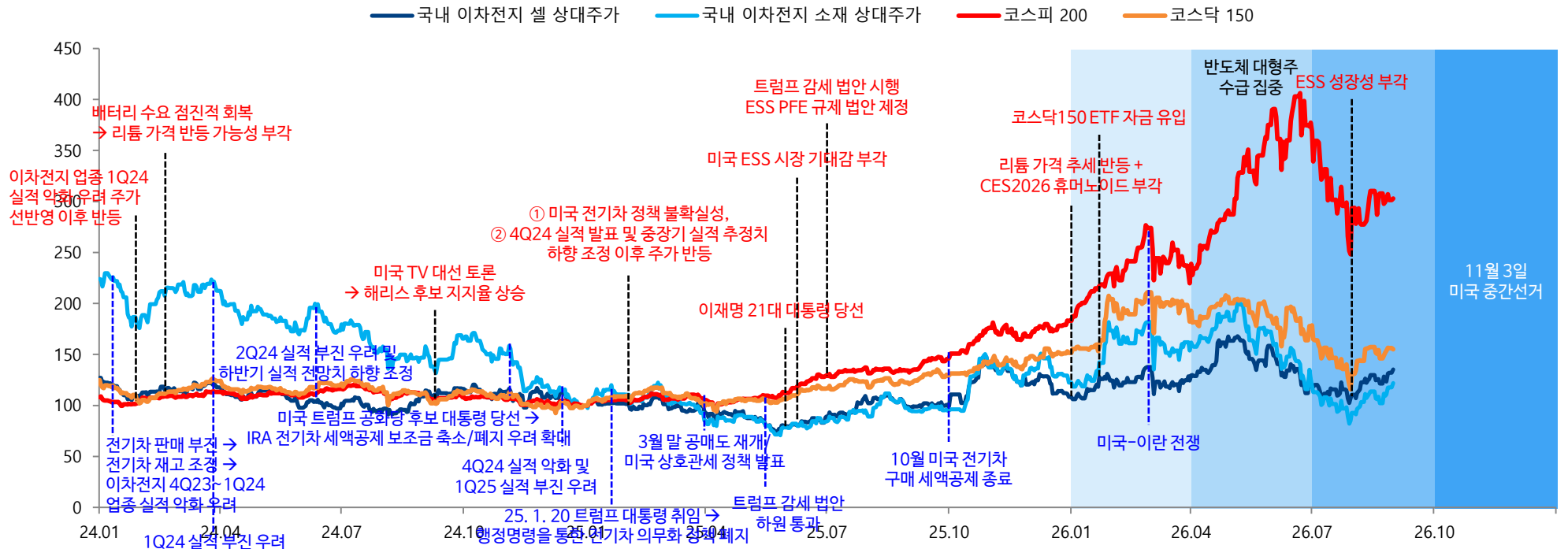
섹터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수익률 (%)			EPS 성장률 (%)			P/E (배)			P/B (배)		
		1개월	YTD	1년	26F	27F	28F	26F	27F	28F	26F	27F	28F	
운송	HMM	20,138	2.6	4.1	-3.4	-0.4	-32.1	-17.1	11.0	15.9	19.0	0.7	0.7	0.7
	대한항공	15,263	2.4	12.6	10.4	-55.8	286.0	24.0	29.1	7.9	6.4	1.0	0.9	0.8
	팬오션	10,494	10.0	26.4	20.0	52.4	5.5	5.8	6.6	6.2	5.9	0.5	0.5	0.4
	CJ대한통운	3,068	4.9	49.1	47.4	-11.4	24.0	15.1	7.8	6.3	5.4	0.4	0.3	0.3
	현대글로벌버스	1,697	-0.1	-21.4	-10.9	-3.3	13.6	6.2	9.3	8.2	7.7	1.3	1.2	1.1
증권·보험·기타금융	삼성생명	61,700	2.3	96.0	115.6	34.0	76.8	-33.5	18.7	10.1	14.9	0.4	0.4	0.4
	삼성화재	30,226	9.7	36.4	52.5	19.5	18.0	-2.8	12.9	10.9	11.3	0.8	0.8	0.8
	메리츠금융지주	19,981	-3.2	5.8	-5.6	21.5	12.7	10.8	7.9	7.1	6.5	1.7	1.5	1.3
	미래에셋증권	18,897	1.9	50.1	83.1	131.4	-42.1	8.6	6.4	11.4	10.6	1.2	1.1	1.0
	한국금융지주	10,499	-7.6	15.9	40.2	52.7	-14.9	2.9	3.7	4.3	4.2	0.8	0.7	0.6
	NH투자증권	9,692	-6.9	23.8	35.1	58.0	-14.9	0.5	5.9	6.9	6.7	0.9	0.9	0.8
	DB손해보험	12,013	17.6	40.5	39.0	1.4	1.9	4.7	6.9	6.7	6.4	0.9	0.8	0.8
	키움증권	7,147	-6.0	-6.4	32.6	64.8	-16.6	2.1	4.0	4.8	4.7	0.9	0.8	0.7
	한화생명	5,159	34.4	83.3	89.5	47.5	-6.3	9.6	5.9	6.3	5.7	0.3	0.3	0.3
	현대해상	4,441	36.9	69.2	86.7	0.8	7.6	8.9	4.6	4.2	3.9	0.6	0.6	0.5
	K금융	61,574	4.3	39.0	60.4	22.5	6.9	5.3	9.2	8.6	8.1	1.0	0.9	0.9
	신한지주	51,827	11.0	43.0	69.1	25.6	7.9	7.1	8.8	8.2	7.7	0.9	0.8	0.7
	하나금융지주	37,534	10.1	45.2	66.4	16.8	7.8	6.3	8.3	7.7	7.2	0.8	0.7	0.7
	우리금융지주	25,032	3.2	25.4	41.6	7.2	8.8	6.5	7.6	7.0	6.6	0.6	0.6	0.6
	기업은행	16,507	0.5	-1.2	8.8	5.9	5.8	5.8	6.0	5.6	5.3	0.5	0.4	0.4
은행·신용카드	카카오뱅크	10,330	-1.4	-0.2	-12.2	29.9	6.8	4.2	17.3	16.2	14.7	1.5	1.4	1.3
	JB금융지주	5,307	8.6	9.6	21.1	9.7	7.7	7.0	7.2	6.7	6.2	0.9	0.8	0.7
	BNK금융지주	4,642	0.3	-5.4	5.1	1.6	13.9	8.8	5.9	5.2	4.8	0.4	0.4	0.4
	POSCO홀딩스	26,704	8.2	10.3	18.0	189.8	24.3	17.5	13.7	11.1	9.4	0.4	0.4	0.4
	고려아연	26,634	28.9	-3.0	55.4	54.4	-6.3	11.1	21.6	22.8	20.8	2.3	2.2	2.0
정유·화학	현대제철	4,097	17.4	-1.3	-4.4	특자전환	194.0	23.6	36.2	11.8	9.5	0.2	0.2	0.2
	SK이노베이션	20,946	12.8	22.1	22.8	특자전환	-36.9	7.8	8.2	13.6	13.0	0.8	0.8	0.7
	LG화학	19,695	9.4	-16.1	0.5	적자지출	특자전환	69.7	-	11.9	6.8	0.6	0.6	0.6
	S-Oil	17,124	19.2	83.7	152.2	1,566	-22.6	-14.6	6.0	7.8	9.2	1.5	1.3	1.2
	금호석유화학	3,192	11.1	5.0	15.8	87.9	-13.7	6.0	6.3	7.5	7.0	0.5	0.5	0.4
유틸리티	롯데케미칼	2,532	6.1	-15.9	-6.8	적자지출	적자지출	특자전환	-	-	29.9	0.2	0.2	0.2
	한국전력	20,447	-7.8	-32.5	-12.4	-48.2	50.5	16.2	4.6	3.1	2.6	0.4	0.4	0.3
	한국가스공사	3,406	7.4	-6.1	-6.7	742.1	-7.3	8.8	2.9	3.2	2.9	0.3	0.3	0.2
	SK가스	2,109	5.1	1.1	-11.7	141.1	-35.0	-6.3	4.8	6.7	6.6	0.6	0.5	0.5
	KT&G	18,198	-1.9	22.9	30.1	32.2	7.7	6.3	13.9	12.9	12.1	1.9	1.8	1.7
음식료·담배	삼양식품	11,646	31.8	24.8	-1.3	44.4	21.2	17.4	20.7	17.0	14.5	6.6	4.8	3.7
	오리온	5,107	-1.4	22.0	19.9	25.4	10.4	7.0	10.7	9.6	9.0	1.2	1.1	1.0
	CJ제일제당	2,824	-1.3	-10.0	-18.1	특자전환	45.4	23.8	10.1	7.0	5.6	0.4	0.4	0.4
	농심	2,755	18.9	4.9	10.5	17.5	4.5	8.1	13.3	12.8	11.8	0.9	0.8	0.8
	오뚜기	1,349	4.3	-12.7	-12.3	-	-	-	-	-	-	-	-	-
	롯데칠성	920	-1.8	-28.7	-17.1	114.1	22.4	13.4	9.8	8.2	7.3	0.6	0.6	0.6
	에이피알	17,278	44.0	98.1	103.3	102.0	39.5	24.9	29.5	21.2	16.9	20.1	12.3	8.1
	아모레퍼시픽	8,832	16.8	24.7	25.5	64.5	15.7	13.5	26.9	23.2	20.6	1.8	1.7	1.6
	LG생활건강	4,770	12.1	22.0	7.8	특자전환	23.5	11.1	23.4	19.1	17.1	0.9	0.9	0.9
	영원무역	3,199	-17.6	-12.0	23.0	19.3	5.0	10.8	5.4	5.2	4.7	0.7	0.6	0.6
건설·건설재	한국물마	3,864	72.9	163.9	112.7	53.9	22.1	14.3	19.7	16.3	14.2	3.5	2.9	2.5
	코스맥스	3,405	63.7	81.5	38.6	35.7	21.2	21.0	20.7	17.1	14.2	5.0	4.0	3.3
	F&F	2,532	-9.8	-4.1	-0.6	22.1	-3.5	11.3	5.1	5.3	4.8	1.1	1.0	0.8
	현대건설	13,842	34.1	77.3	100.2	40.8	30.9	26.0	27.0	20.5	16.3	1.5	1.5	1.3
	삼성E&A	9,261	7.9	96.1	62.4	19.9	24.2	11.7	12.7	10.3	9.2	1.8	1.5	1.4
지주회사	대우건설	7,614	45.0	383.2	398.1	특자전환	-2.3	15.1	14.1	14.5	12.6	2.0	1.7	1.6
	KCC	4,069	23.8	12.9	19.0	7.6	-83.1	11.1	2.3	13.7	12.5	0.4	0.4	0.4
	GS건설	3,102	54.6	83.9	94.2	89.4	103.6	16.0	18.6	9.0	7.9	0.6	0.6	0.6
	DLI엔씨	2,743	21.2	71.9	67.4	37.4	-3.7	13.7	6.0	6.3	5.5	0.5	0.5	0.5
	SK스퀘어	132,188	-3.5	171.9	573.4	402.4	24.9	9.1	3.1	2.4	2.3	2.1	1.3	0.9
·교육	삼성물산	60,651	8.9	56.2	122.9	16.9	26.8	7.4	22.3	18.1	17.0	0.9	0.9	0.8
	SK	38,644	-2.4	107.0	157.5	560.0	18.1	27.6	3.2	2.7	2.2	0.9	0.6	0.5
	두산	21,036	11.0	65.9	132.0	579.2	55.2	13.3	47.3	30.4	25.3	9.9	7.6	6.2
	HD현대	17,260	4.0	16.0	59.4	257.4	-17.7	8.8	4.8	5.9	5.4	1.3	1.1	0.9
	LG	17,674	17.3	44.7	56.9	70.9	18.2	7.2	14.6	12.3	11.3	0.6	0.6	0.6
·의료	GS	11,946	45.6	128.8	182.6	216.3	-46.5	1.1	5.0	9.1	9.1	0.7	0.7	0.6
	LS	9,391	13.4	49.8	69.5	126.9	20.1	16.5	14.9	12.4	10.7	1.6	1.5	1.3

배터리 셀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 확대, 이차전지 섹터 비중 확대 유효

- 국내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Neutral 투자 의견은 유지하나, **현 시점에서는 업종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비중 확대보다 실적 개선 가시성과 미국 정책 수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배터리 셀 업체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 중소형주에서는 삼성SDI와 SK온의 북미향 ESS 완제품을 생산하는 서진시스템, 삼성SDI ESS에 수냉식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중엔시에스, LG에너지솔루션 ESS용 배터리 패키징을 담당하는 세방전지, 양극용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는 삼아알미늄 등 ESS 관련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SDI ESS향 LFP 양극재를 본격 양산하는 엘앤에프의 수혜도 예상. 향후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른 미국 ESS 수요의 가파른 성장, 중국 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최근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가는 메모리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ESS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큰 폭으로 반등**. 8월 한 달 동안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는 평균 약 32%, 소재 업체들은 평균 약 49% 상승.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주가는 2028년 예상 실적 기준 각각 P/E 22.5배와 20.1배 수준으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높아졌지만, 2020~2023년 EV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형성됐던 주가 랠리 당시와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수급이 분산되는 국면에서 2028년까지 높은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이차전지 셀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및 ESS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될 가능성도 단기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요인

국내 이차전지 업종 상대주가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100

LG에너지솔루션 Buy(Maintain)_TP 550,000원

- 동사의 2Q26 실적은 매출 7.6조원(+25% YoY, +15% QoQ), 영업이익 1,130억원(-77% YoY, 흑자전환 QoQ)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 대비 매출은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하회

-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주된 원인은 ESS 배터리 패키징 협력사의 생산 병목에 따른 출하 지연 때문. 이에 따라 ESS 매출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며 전분기 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침. 다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를 기반으로 ESS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또한 생산 가동률 상승과 AMPC 수혜 확대에 힘입어 ESS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사 실적도 흑자전환

- 자동차 전지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 미국 GM 얼티엄셀즈 생산라인은 EV 수요 둔화와 고객사의 생산 조정 영향으로 여전히 가동 중단 중. 그러나 유럽향 출하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전지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5% 증가했고, 적자폭도 축소

- 소형전지도 역시 견조한 수요 지속. 전방 고객사인 Tesla 판매 호조에 힘입어 원형전지 출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과 수익성 방어에 기여

- 3Q26 ESS 매출은 이연 물량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약 40% 증가하고,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3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국 ESS 생산라인의 가동 안정화와 AMPC 수혜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자동차전지도 3Q26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유럽향 출하 증가에 더해 GM 얼티엄셀즈 1공장의 가동이 재개되면서 자동차 전지 매출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라 적자폭도 뚜렷하게 축소될 전망

- 업종 내에서 실적 개선 가시성과 정책 수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배터리 셀 업체 중심의 선별적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6,723	6,056	6,065	6,474	6,555	7,560	9,021	9,432	25,319	32,567	42,241	50,444
xEV(중대형)	4,631	4,056	3,658	2,947	2,751	2,887	3,379	3,289	13,918	12,306	14,384	16,501
ESS	492	502	774	1,645	1,854	2,372	3,293	3,867	3,139	11,386	17,827	22,315
소형	1,600	1,498	1,633	1,883	1,949	2,301	2,348	2,275	6,615	8,875	10,029	11,628
YoY 증감률					-2%	25%	49%	46%	0%	29%	30%	19%
QoQ 증감률					1%	15%	19%	5%				
매출원가	5,253	4,563	4,253	5,371	5,314	6,015	7,100	7,314	19,440	25,743	31,656	36,726
매출원가율	78%	75%	70%	83%	81%	80%	79%	78%	77%	79%	75%	73%
매출총이익	1,012	1,002	1,447	771	1,052	1,545	1,921	2,117	4,232	6,635	10,585	13,718
매출총이익률	15%	17%	24%	12%	16%	20%	21%	22%	17%	20%	25%	27%
판매비 및 관리비	1,095	1,001	1,211	1,226	1,449	1,432	1,628	1,647	4,533	6,156	7,390	8,165
판매비율	16%	17%	20%	19%	22%	19%	18%	17%	18%	19%	17%	16%
영업이익	375	492	601	-122	-208	113	293	470	1,346	669	3,194	5,553
(AMPC)	458	491	365	333	190	241	347	444	1,647	1,221	2,171	3,030
(AMPC 제외 이익)	-83	1	236	-455	-397	-128	-53	26	-301	-553	1,024	2,523
영업이익률	6%	8%	10%	-2%	-3%	1%	3%	5%	5%	2%	8%	11%
YoY 증감률	138%	152%	34%	적자지속	적자전환	-77%	-51%	흑자전환	134%	-50%	378%	74%
QoQ 증감률	흑자전환	31%	22%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159%	60%				
세전이익	365	-27	553	-476	-859	-128	293	544	414	-149	2,834	5,107
당기순이익	227	91	536	-772	-944	-329	368	681	81	-224	2,409	4,341
(지배주주순이익)	-146	-297	247	-877	-676	-49	-106	567	-1,073	-264	2,425	3,932
당기순이익률	3%	1%	9%	-12%	-14%	-4%	4%	7%	0%	-1%	6%	9%
YoY 증감률	7%	흑자전환	-4%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전환	-31%	흑자전환	-76%	적자전환	흑자전환	80%
QoQ 증감률	흑자전환	-60%	492%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85%				

삼성SDI Buy(Maintain)_TP 590,000원

- 동사의 2Q26 실적은 매출 3.8조원(+19% YoY, +5% QoQ), 영업이익 2,040억원(흑자전환 YoY/QoQ)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호실적의 주된 요인은 미국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따른 환급금 약 1,900억원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되었기 때문

- 자동차전지는 Stellantis 유럽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SPE 공장 대체 생산 물량 확대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AMPC 효과로 적자폭도 뚜렷하게 축소. 다만 주력 고객사인 BMW, VW향 출하량은 점유율 하락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

- ESS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AIDC 투자 증가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 그러나 지난해 수주한 국내 중앙계약시장 프로젝트 물량 일정이 3Q26으로 지연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10% 감소

- 소형전지는 전동공구, AIDC향 BBU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10% 증가하며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

-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소재의 견조한 출하 흐름 속에 OLED 소재도 비수기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

- 하반기에는 ESS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3Q26 ESS는 전분기에서 이연된 국내 중앙계약시장 프로젝트 물량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 LFP 라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4Q26에는 매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반면 자동차 전지는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미국 SPE에서 생산되는 유럽향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8% 감소할 전망. 이에 따라 자동차전지 실적 회복 속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향후 동사 실적은 ESS 매출 확대와 생산라인 가동률 상승, 미국 AMPC 수혜 증가가 맞물리면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삼성SDI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177	3,179	3,052	3,859	3,576	3,769	4,078	4,821	13,267	16,244	22,016	27,306
전지 사업부	2,981	2,961	2,820	3,622	3,354	3,519	3,816	4,551	12,390	15,238	20,930	26,123
자동차	1,666	1,397	1,202	1,662	1,306	1,456	1,343	1,436	5,927	5,540	5,691	7,306
ESS	602	644	646	1,004	948	842	1,144	1,730	2,896	4,664	9,388	11,542
소형	713	920	972	957	1,100	1,222	1,330	1,386	3,567	5,034	5,851	7,275
전자재료 사업부	196	218	232	237	222	250	261	269	883	1,002	1,086	1,183
YoY	-38%	-29%	-22%	3%	13%	19%	34%	25%	-23%	22%	36%	24%
QoQ	-15%	0%	-4%	26%	-7%	5%	8%	18%				
영업이익	-434	-398	-591	-299	-156	204	110	238	-1,722	396	1,756	2,774
전지 사업부	-452	-431	-630	-339	-177	159	59	186	-1,852	228	1,576	2,553
자동차(AMPC 포함)	-265	-370	-530	-276	-140	-30	-52	-41	-1,441	-263	-23	117
ESS(AMPC 포함)	43	14	-32	58	72	264	114	210	83	659	1,417	1,976
소형	-230	-75	-68	-121	-109	-74	-3	17	-494	-169	182	460
전자재료 사업부	18	33	39	39	21	44	51	52	129	168	180	221
YoY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흑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344%	58%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46%	116%				
영업이익률	-14%	-13%	-19%	-8%	-4%	5%	3%	5%	-13%	2%	8%	10%
전지 사업부	-15%	-15%	-22%	-9%	-5%	5%	2%	4%	-15%	1%	8%	10%
자동차(AMPC 포함)	-16%	-26%	-44%	-17%	-11%	-2%	-4%	-3%	-24%	-5%	0%	2%
ESS(AMPC 포함)	7%	2%	-5%	6%	8%	31%	10%	12%	3%	14%	15%	17%
소형	-32%	-8%	-7%	-13%	-10%	-6%	0%	1%	-14%	-3%	3%	6%
전자재료 사업부	9%	15%	17%	17%	9%	18%	19%	19%	15%	17%	17%	19%
지분법 관련 손익	130	128	229	351	115	396	429	769	838	1,708	631	732
세전이익	-357	-341	-430	-236	-43	479	428	646	-1,364	1,509	1,833	2,970
당기순이익	-216	-167	6	-208	56	472	88	139	-585	755	1,512	2,469
당기순이익률	-7%	-5%	0%	-5%	2%	13%	2%	3%	-4%	5%	7%	9%
YoY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63%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740%	적자지속	흑자전환				

자료: 삼성SDI, iM증권

✓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패시브 자금 수급 유입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 존재

에코프로비엠 분기별 실적 추정치							
(단위: 십억원)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605	577	598	599	2,532	2,379	3,418
YoY	-4%	-26%	-4%	21%	-9%	-6%	44%
QoQ	22%	-5%	4%	0%			
영업이익	21	18	23	25	143	86	201
영업이익률	3%	3%	4%	4%	6%	4%	6%
YoY	823%	-63%	-55%	-41%	흑자전환	-36%	62%
QoQ	-50%	-14%	27%	7%			
세전이익	12	2	4	6	82	25	135
당기순이익	12	-0.5	3	5	92	20	112
순이익률	2%	0%	1%	1%	4%	1%	3%
YoY	흑자전환	적자전환	-93%	-72%	흑자전환	-78%	449%
QoQ	-33%	적자전환	흑자전환	50%			

자료: 에코프로비엠, iM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분기별 실적 추정치							
(단위: 억원)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9	395	375	359	2,619	1,488	1,769
YoY	-38%	-52%	-53%	-14%	20%	-43%	19%
QoQ	-14%	10%	-5%	-4%			
영업이익	-732	-634	-427	-429	-2,464	-2,223	-1,629
영업이익률	-204%	-161%	-114%	-119%	-94%	-149%	-92%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세전이익	-906	-15,451	-507	-508	-3,238	-17,373	-2,484
당기순이익	-818	-13,280	-767	-771	-2,114	-15,636	-1,739
순이익률	-228%	-3360%	-205%	-215%	-81%	-1051%	-98%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자료: SK아이이테크놀로지, iM증권

엘앤에프 분기별 실적 추정치							
(단위: 십억원)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740	885	981	985	2,155	3,591	4,700
YoY	103%	70%	50%	59%	13%	67%	31%
QoQ	20%	20%	11%	0%			
영업이익	117	21	41	42	-157	221	228
영업이익률	16%	2%	4%	4%	-7%	6%	5%
YoY	흑자전환	흑자전환	85%	-49%	적자지속	흑자전환	3%
QoQ	42%	-82%	97%	2%			
세전이익	-56	47	73	-80	-568	-16	73
당기순이익	-65	53	76	-77	-535	-14	67
순이익률	-9%	6%	8%	-8%	-25%	0%	1%
YoY	적자지속	흑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QoQ	적자지속	흑자전환	43%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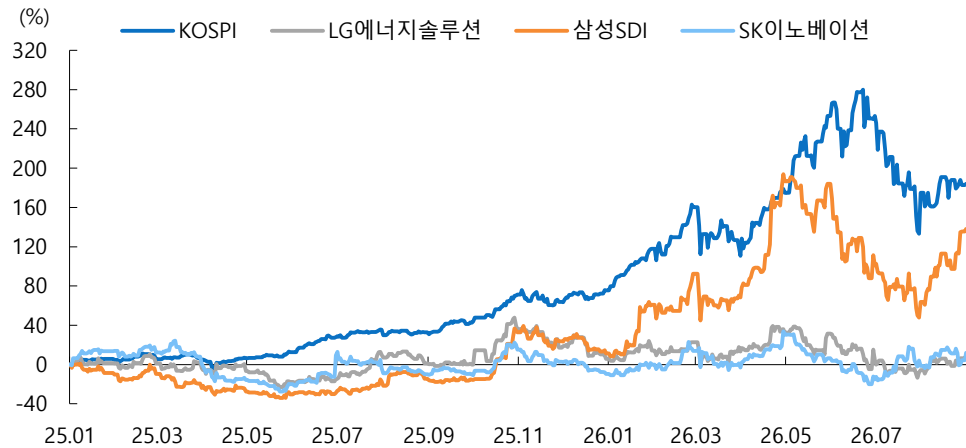
자료: 엘앤에프, iM증권

나노신소재 분기별 실적 추정치							
(단위: 억원)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7	365	389	437	1,117	1,519	2,325
YoY	46%	24%	24%	52%	27%	36%	53%
QoQ	14%	12%	6%	13%			
영업이익	28	53	49	59	46	189	317
영업이익률	8%	15%	13%	13%	4%	12%	14%
YoY	838%	189%	443%	흑자전환	55%	309%	68%
QoQ	흑자전환	94%	-8%	20%			
세전이익	66	94	0	10	23	169	304
당기순이익	65	60	2	12	16	140	251
순이익률	20%	17%	1%	3%	1%	9%	11%
YoY	756%	-410%	-87%	-1%	-188%	754%	79%
QoQ	436%	-7%	-96%	467%			

자료: 나노신소재,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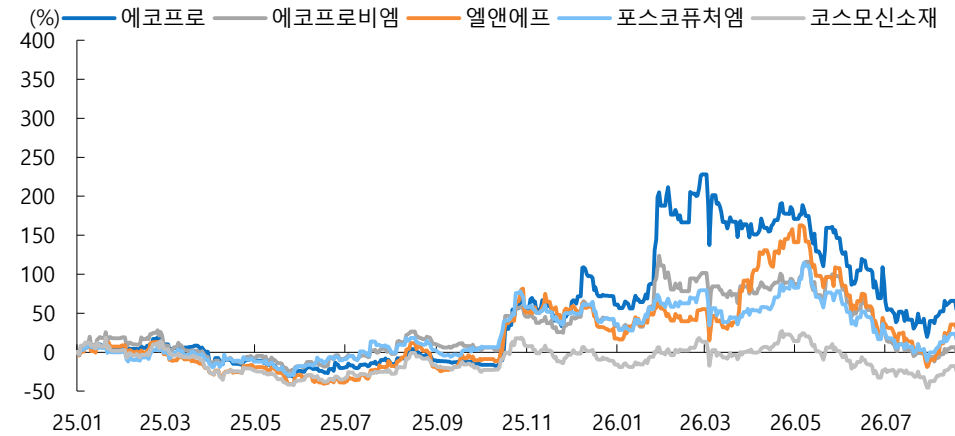
✓ 반도체 업종 수급 풀림 완화되며 5월 고점 대비 낙폭 일부 회복

이차전지 대형주 Vs. KOSPI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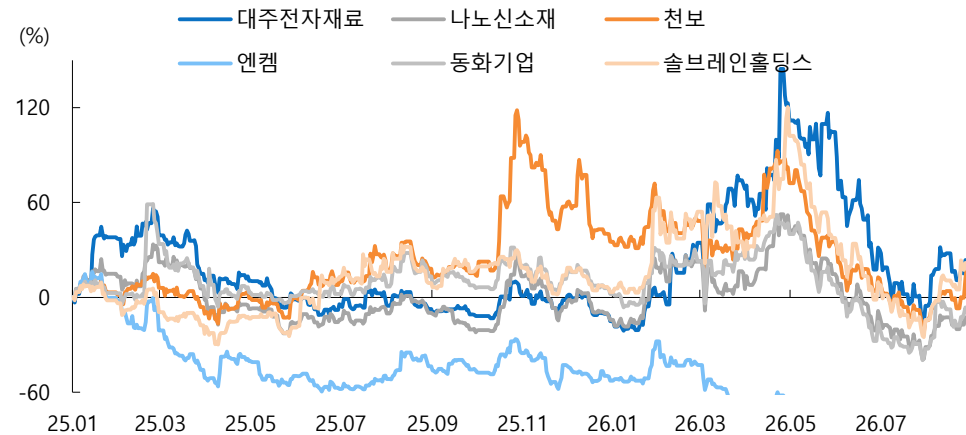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양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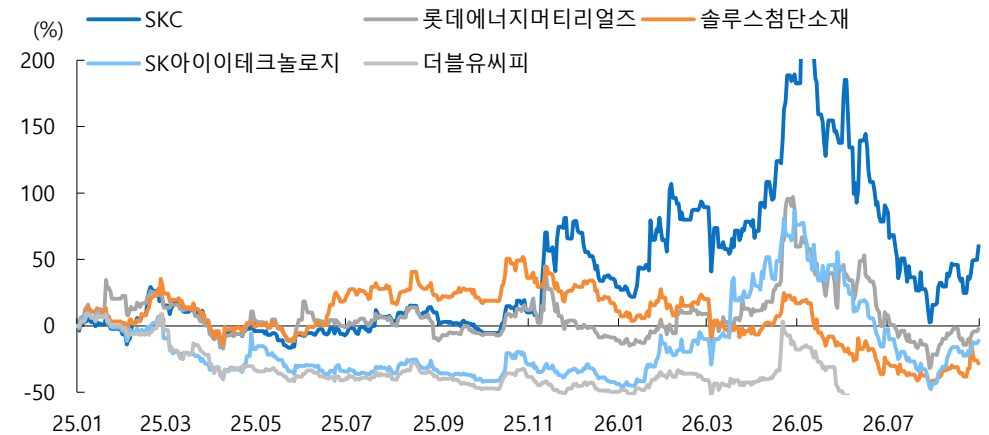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소재 상대주가 비교(실리콘음극재/CNT도전재, 전해액/전해질)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소재 상대주가 비교(전지박, 분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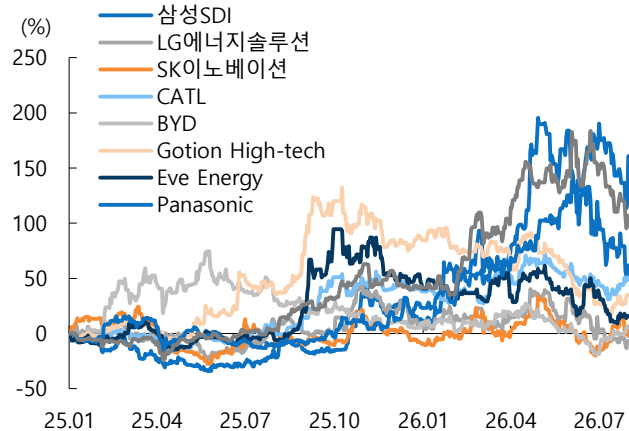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셀/소재 주요 업체별 상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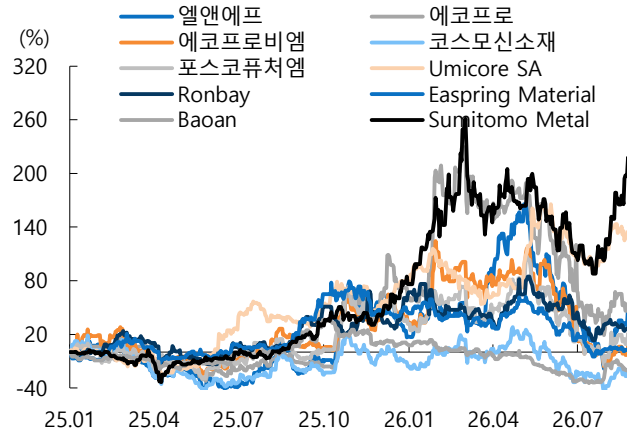
✓ 반도체 업종 수급 풀림 완화되며 5월 고점 대비 낙폭 일부 회복

이차전지 셀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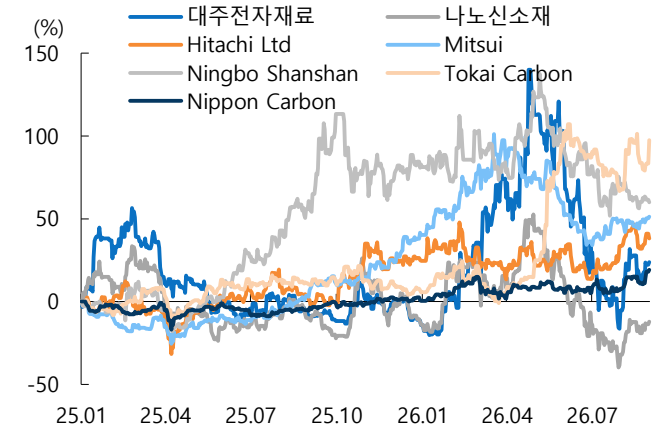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양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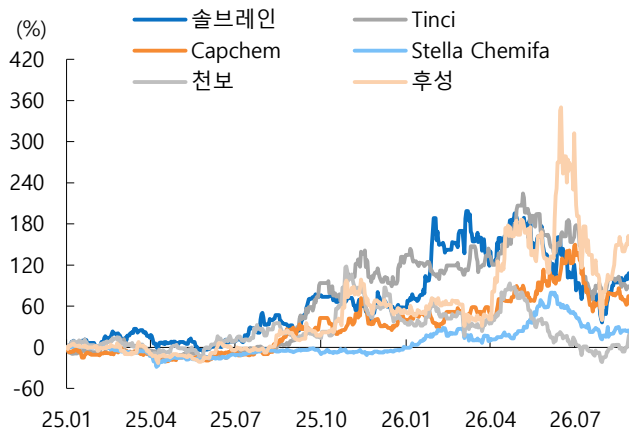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음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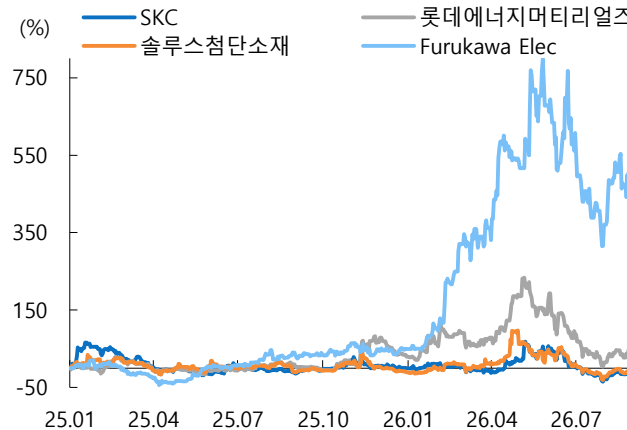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전해액/전해질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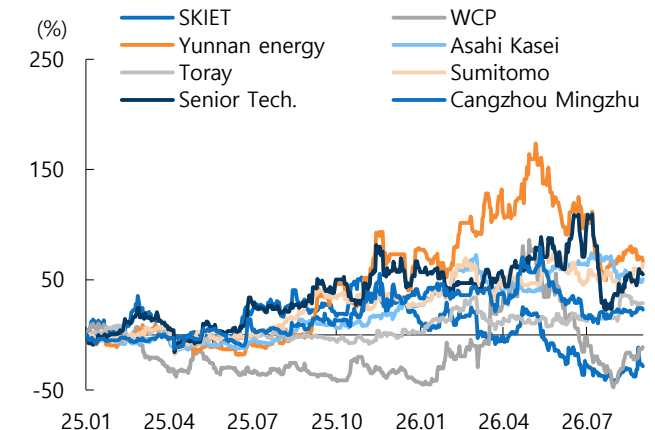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전지박 상대주가 비교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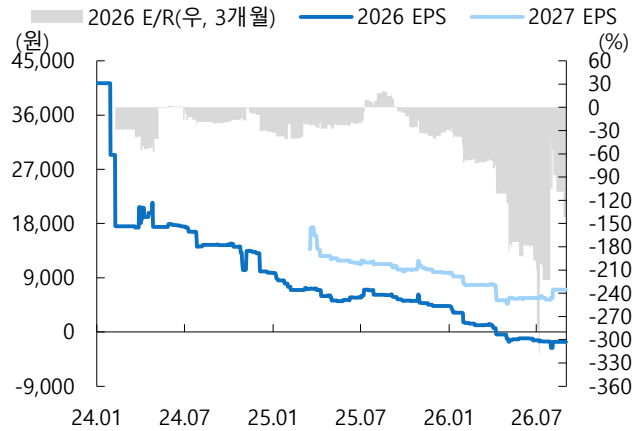
이차전지 분리막 상대주가 비교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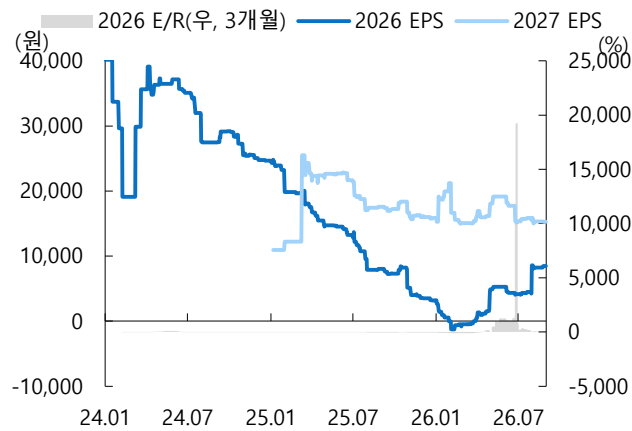
✓ 배터리 셀 - EPS 컨센서스 하향 추세 마무리된 이후 상향 조정도 관찰되는 상황

LG에너지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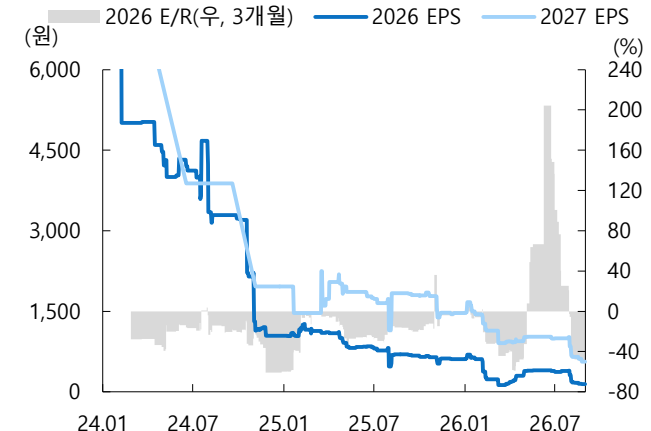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삼성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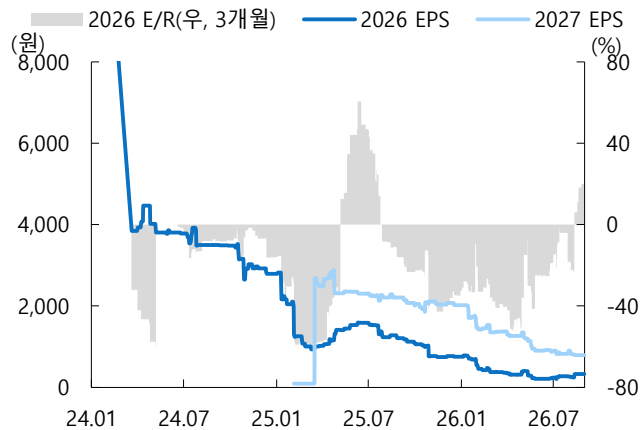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에코프로비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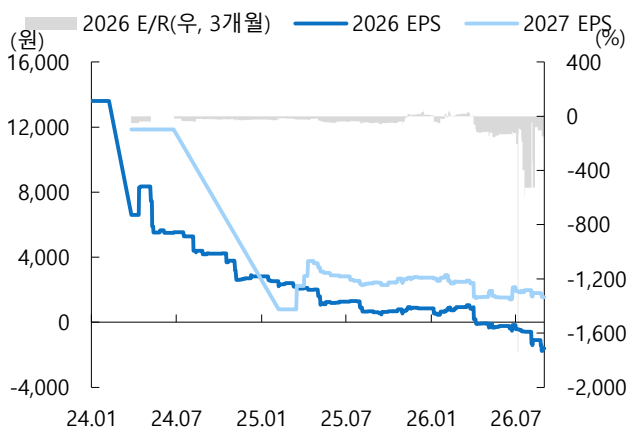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포스코퓨처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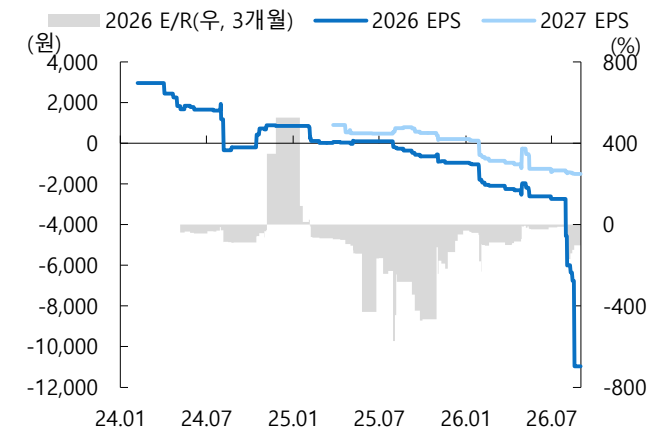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엘엔에프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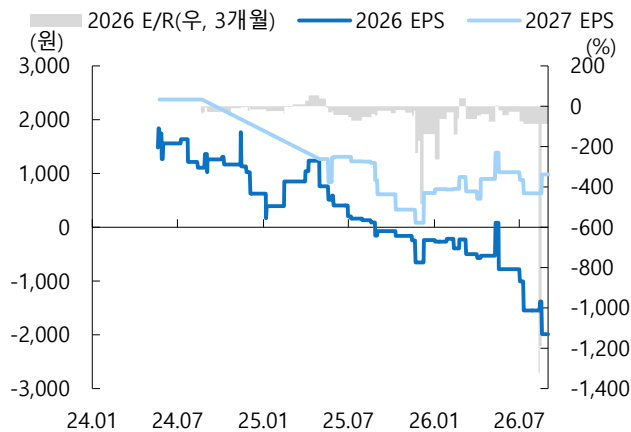
SK아이이테크놀로지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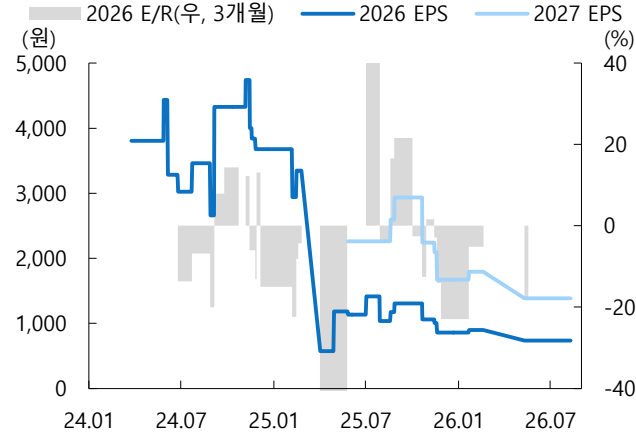
✓ 소재 -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 마무리된 이후 AIDC 노출도와 해외 현지 생산 수혜가 부각되는 업체들 중심의 상향 조정 관찰

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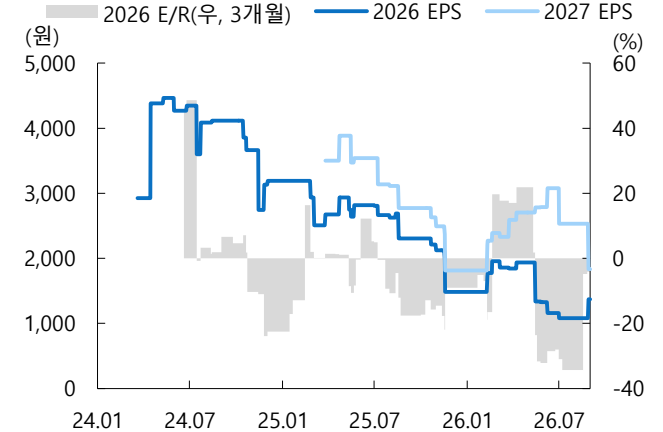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나노신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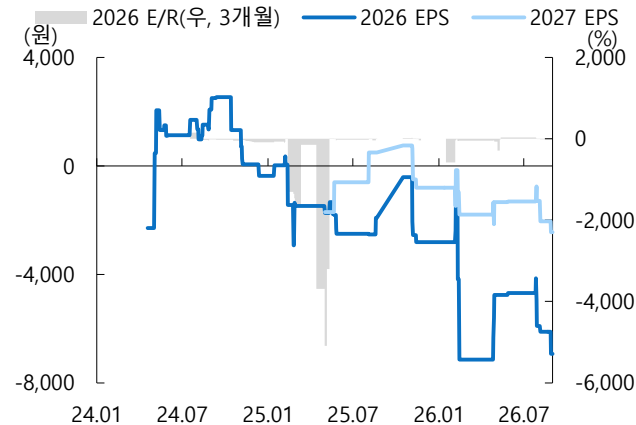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대주전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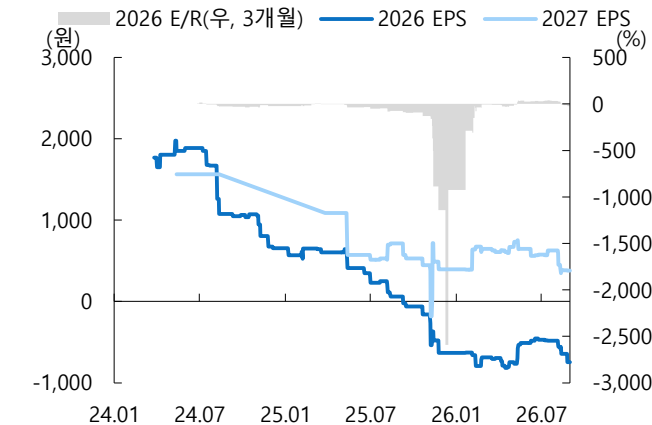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S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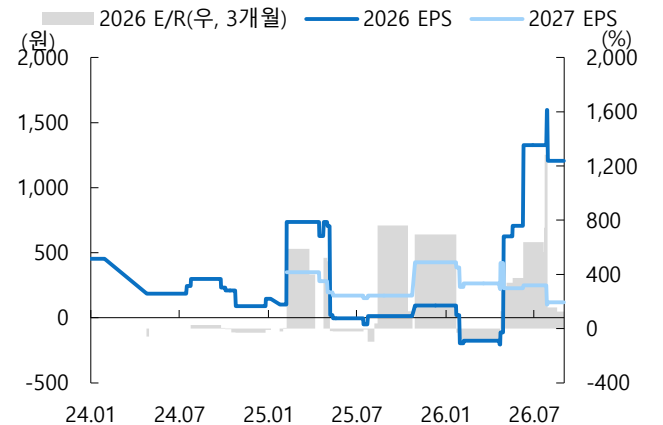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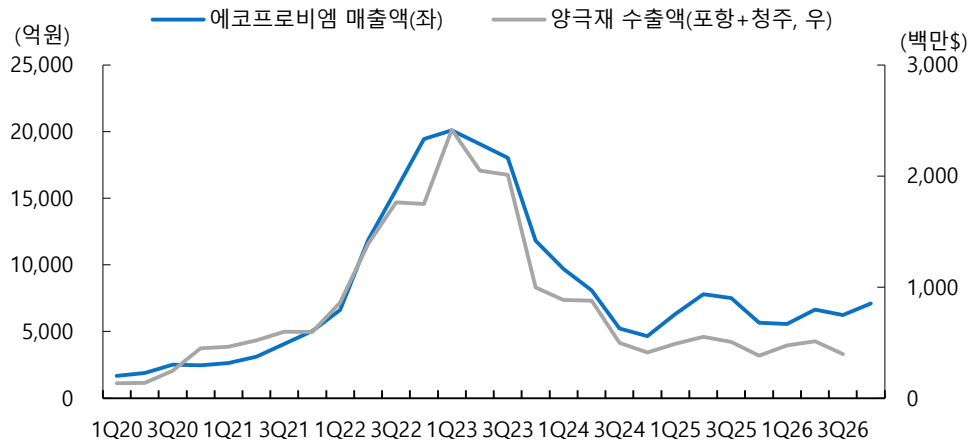
솔루스첨단소재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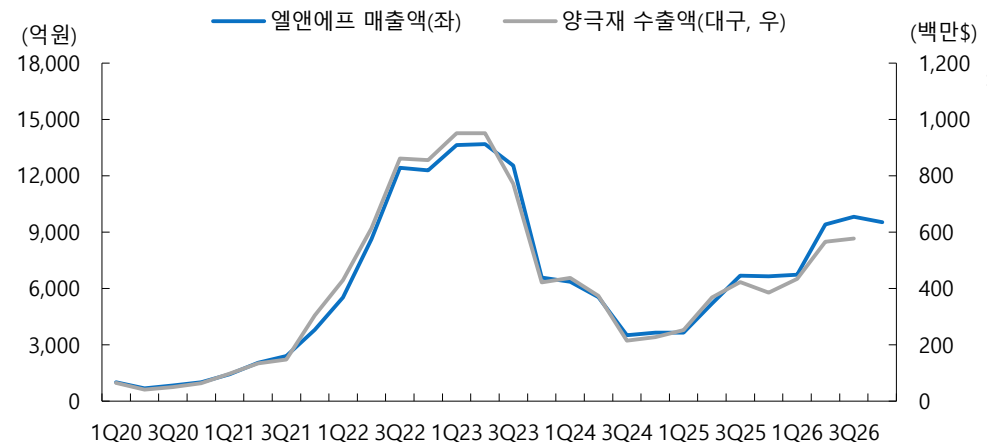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액 데이터에 근거한 엘앤에프의 매출 회복세 전망

에코프로비엠 매출액과 양극재(포항+청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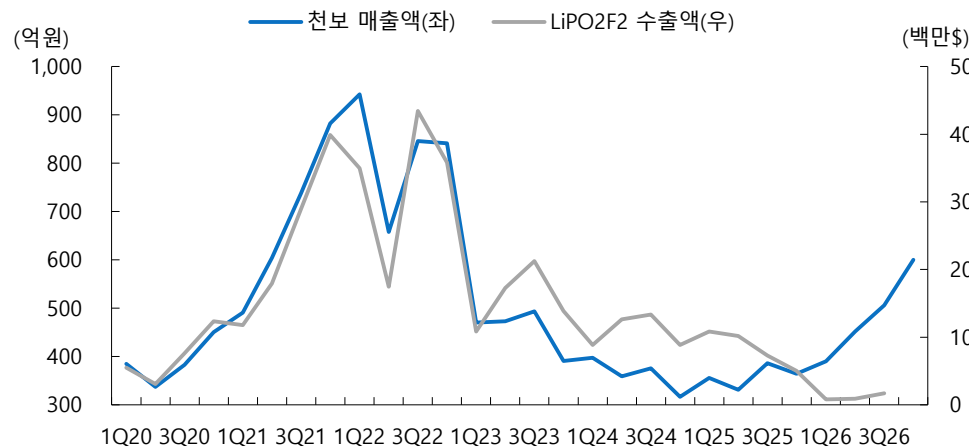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엘앤에프 매출액과 양극재(대구)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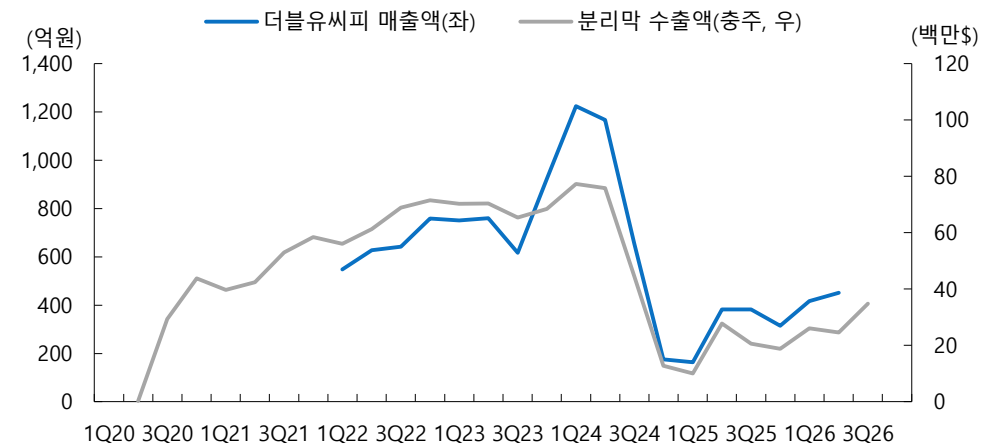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천보 매출액과 P 전해질 수출액 추이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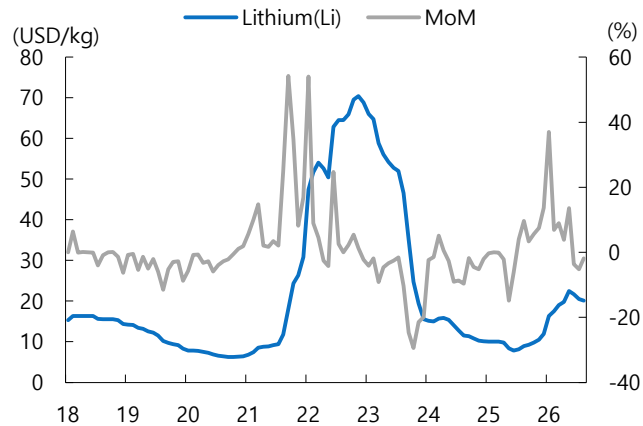
더블유씨피 매출액과 분리막(충주) 수출액 추이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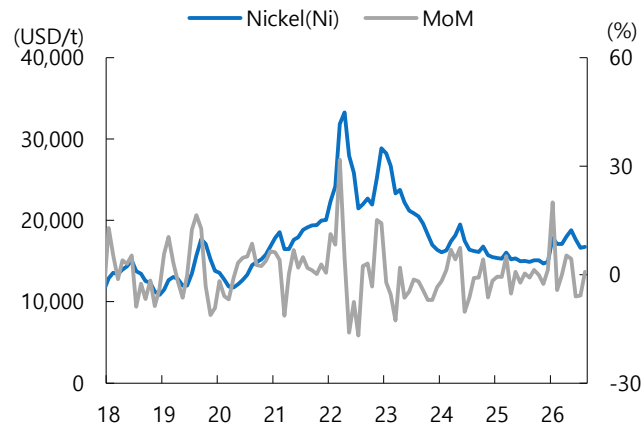
✓ 리튬 가격 중국 탄산리튬 재고일수 감소로 상승, 구리 가격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 재고 축적 수요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

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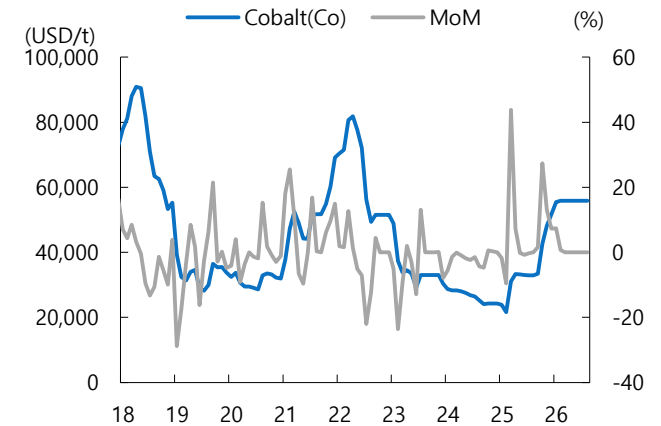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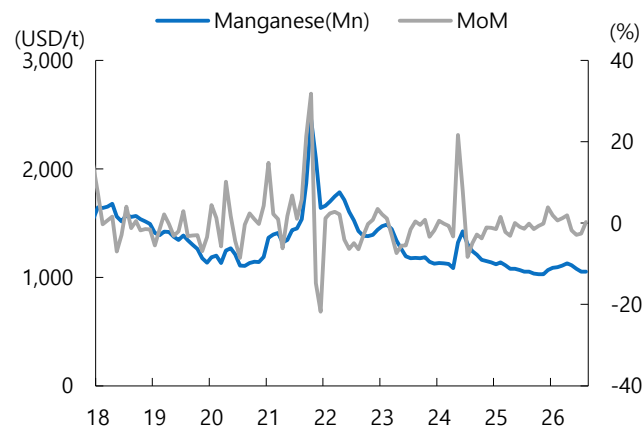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코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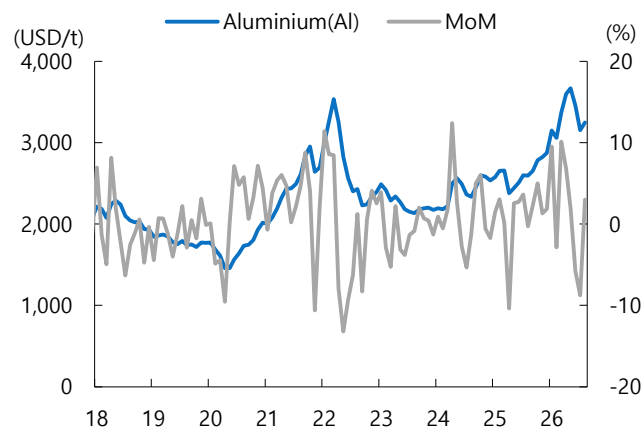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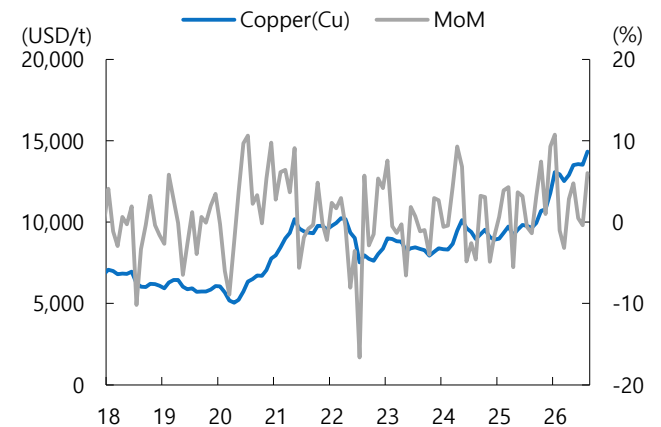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알루미늄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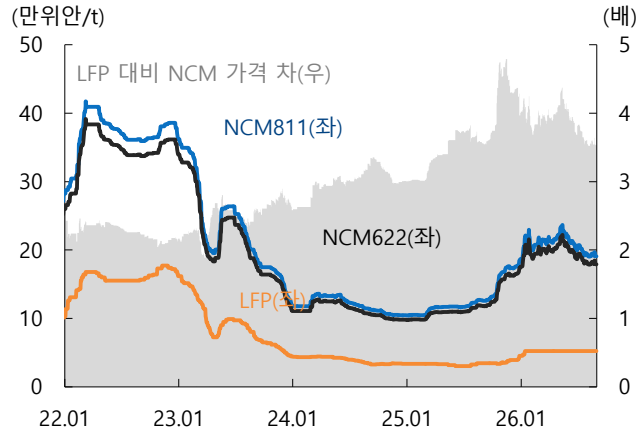
구리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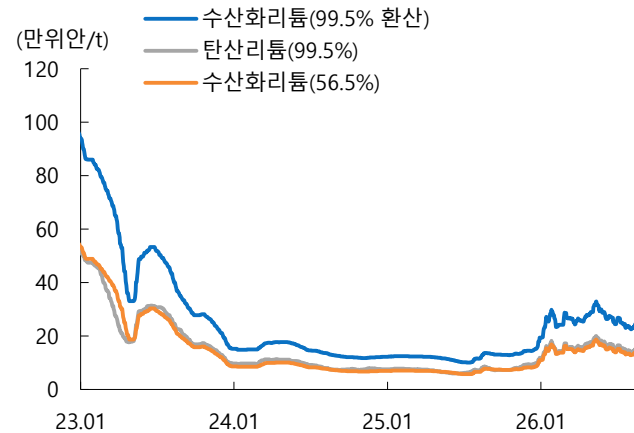
✓ 중국 내수 리튬 가격 7월말 이후 재상승하며 5월부터 지속된 양극재 가격 하락 추세가 일부 완화

NCM/LFP 양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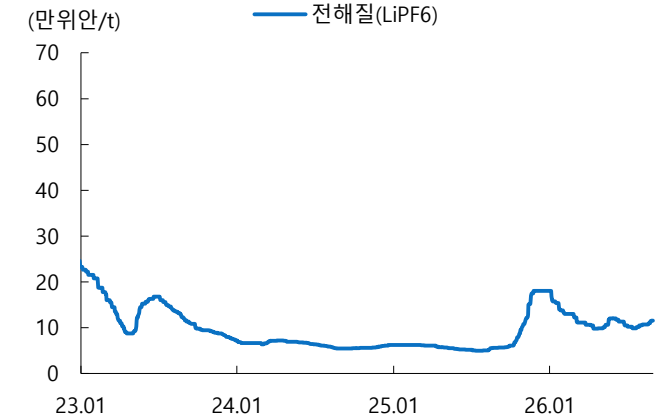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수산화리튬/탄산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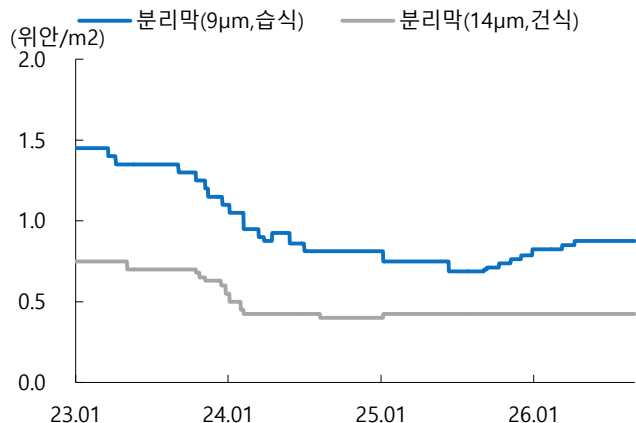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LiPF₆ 전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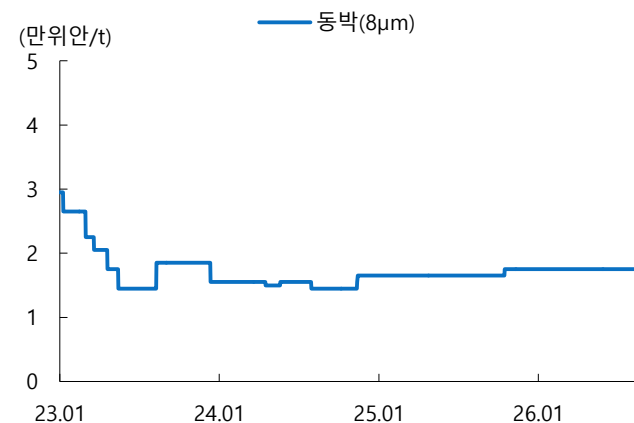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분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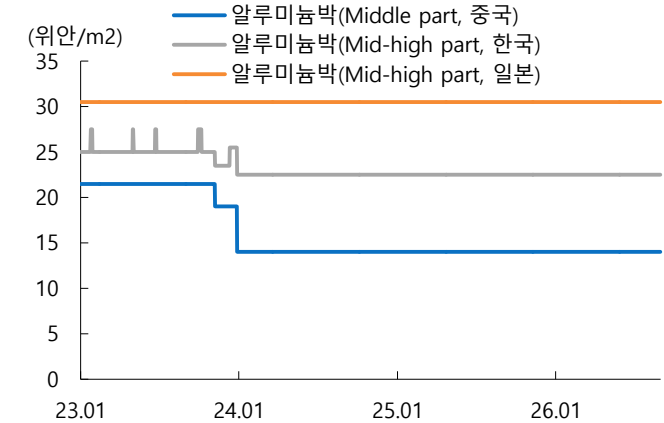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동박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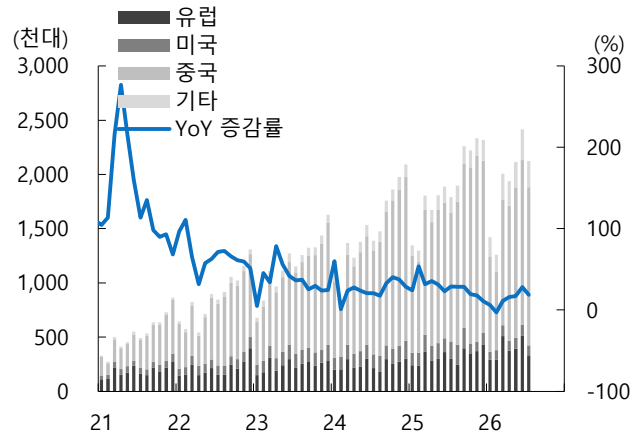
알루미늄박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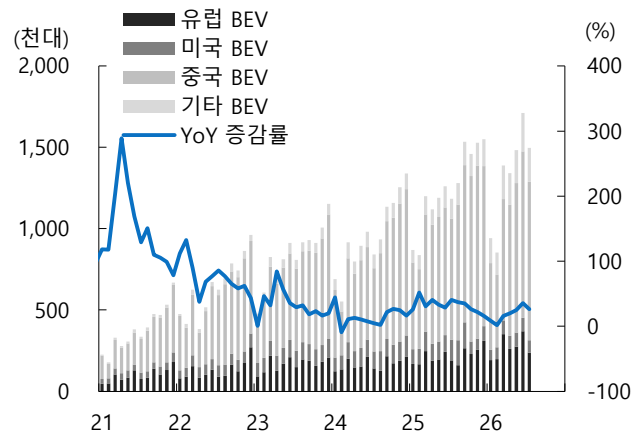
✓ 미국 7월 전기차 판매량 BEV 7.6만대(YoY: -40.4%), PHEV 1.7만대(YoY: -42.8%)

전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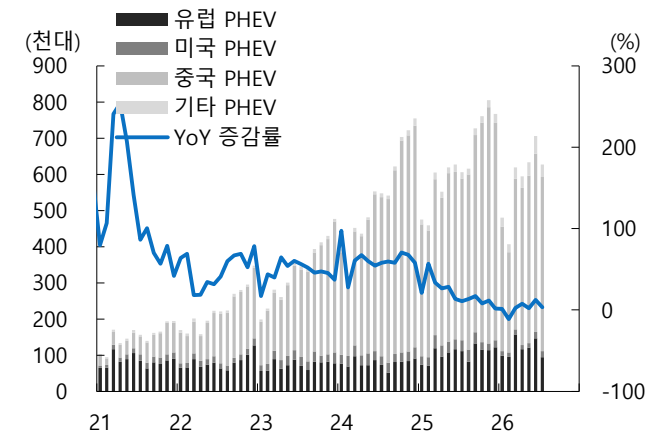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전세계 B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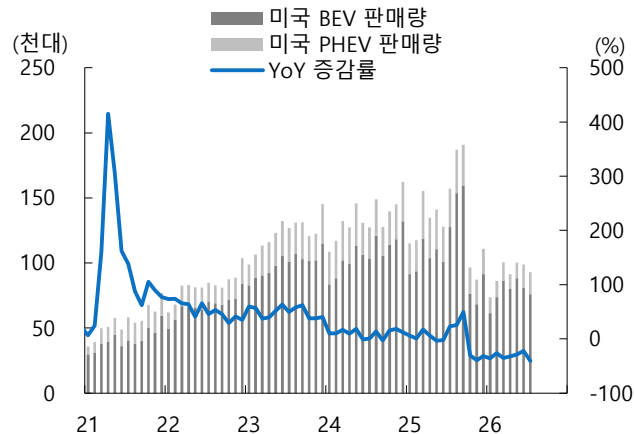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전세계 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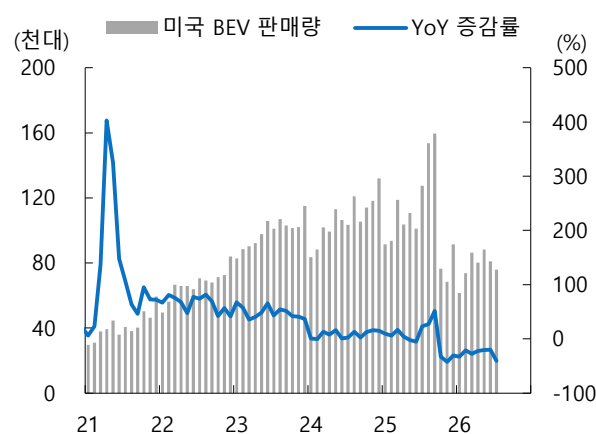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미국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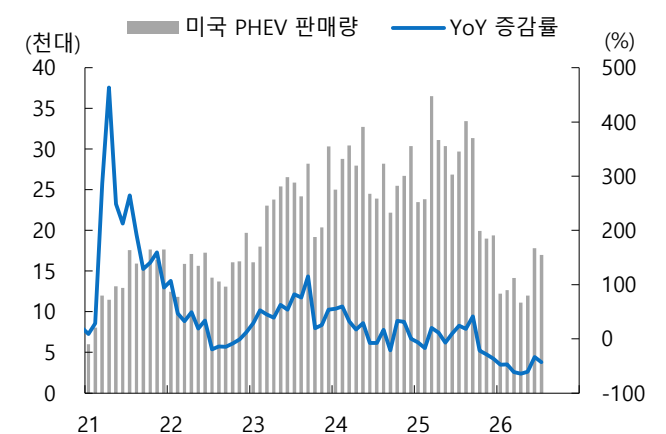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미국 B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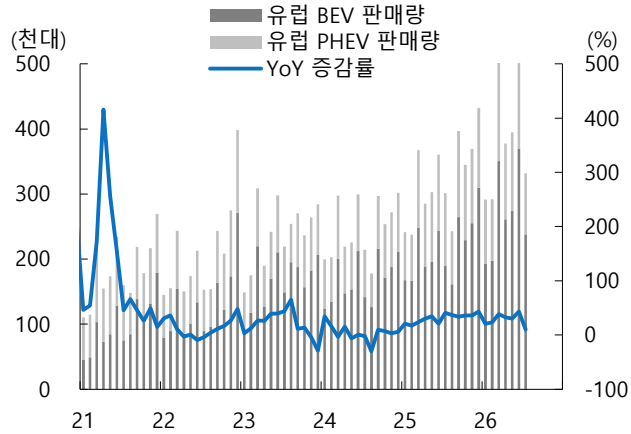
미국 PH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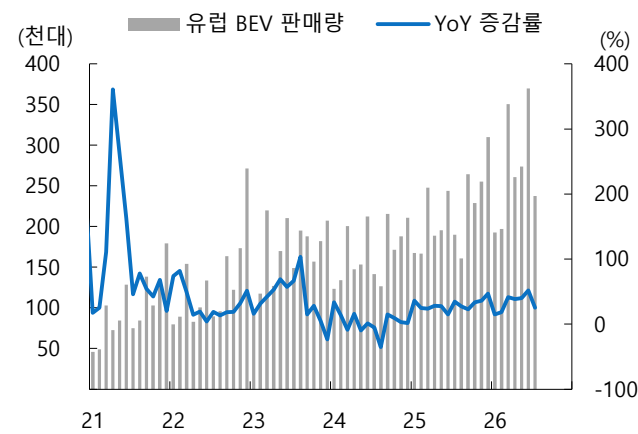
✓ 유럽 자동차 CO₂ 배출량 규제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량 회복세 지속

유럽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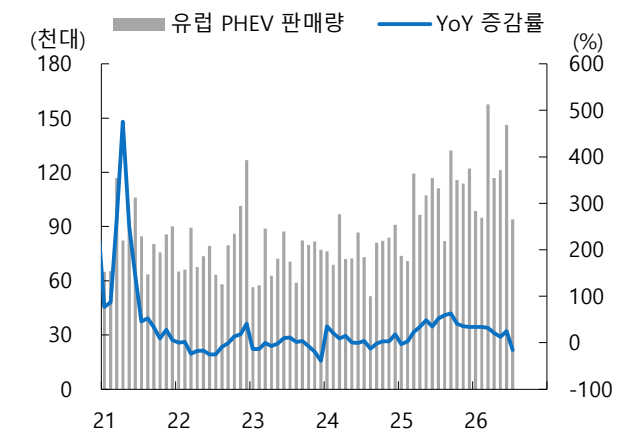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유럽 B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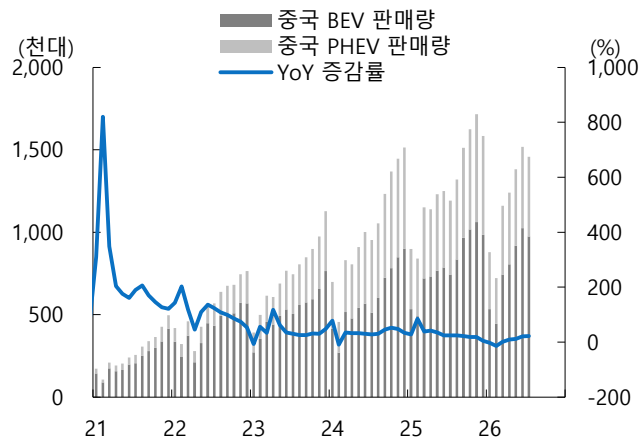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유럽 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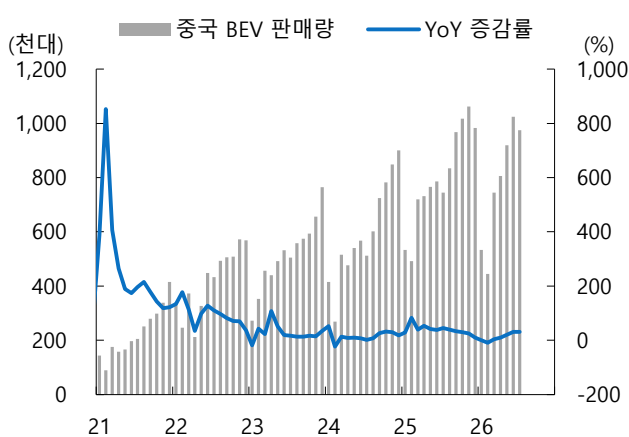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중국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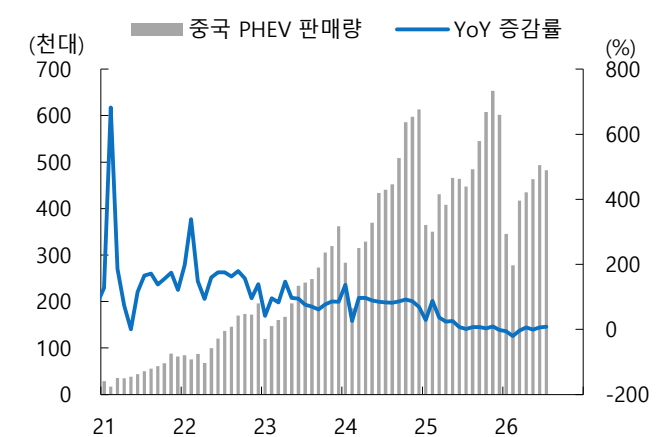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중국 B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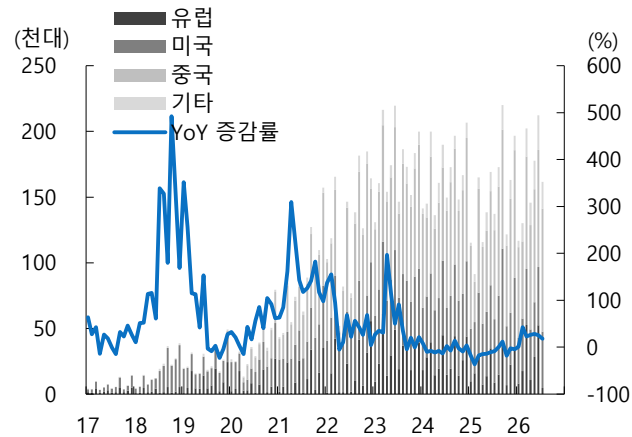
중국 PH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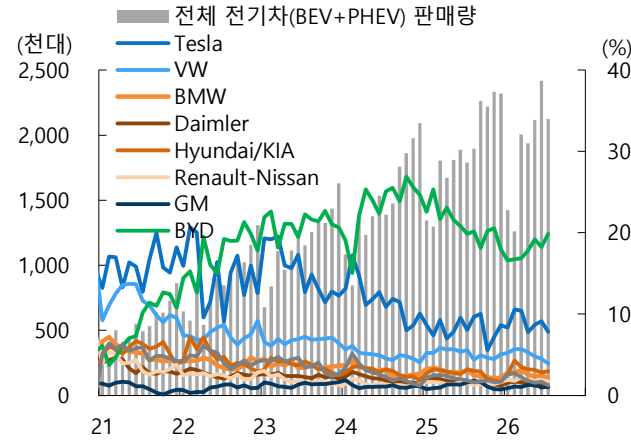
✓ 7월 전기차 침투율 - 미국 6.6%, 유럽 26.6%, 중국 56.4%, 기타 10.3%

TESLA 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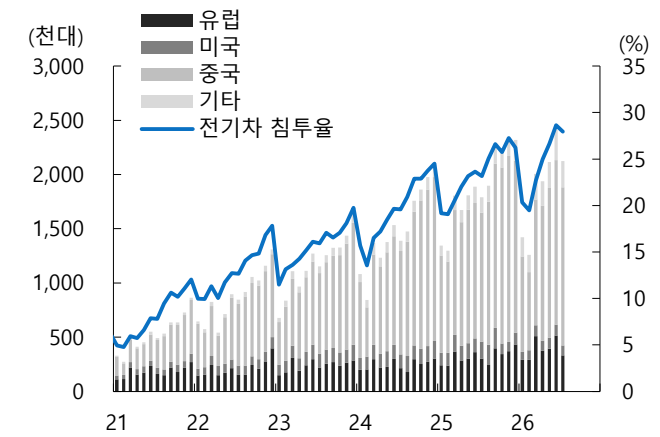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요 업체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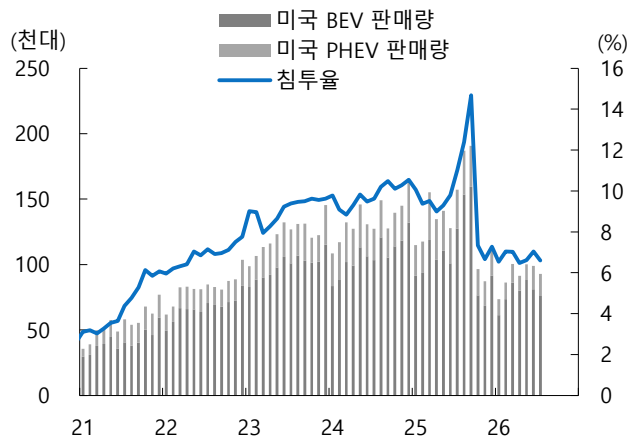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전세계 전기차(BEV+PHEV)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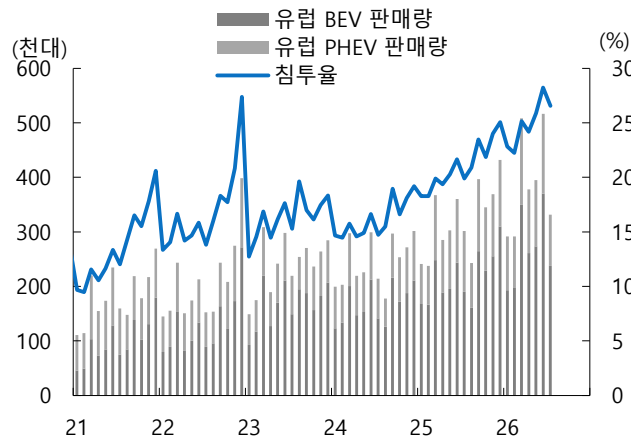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미국 전기차(BEV+PHEV)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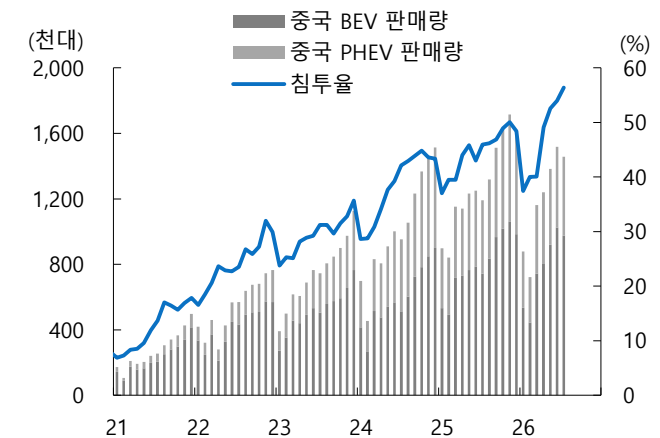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유럽 전기차(BEV+PHEV) 침투율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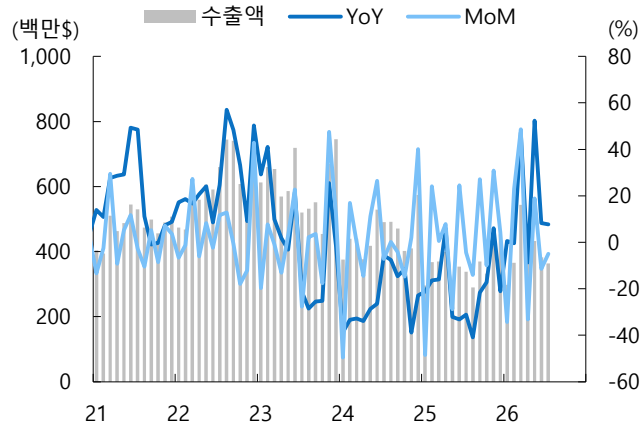
중국 전기차(BEV+PHEV) 침투율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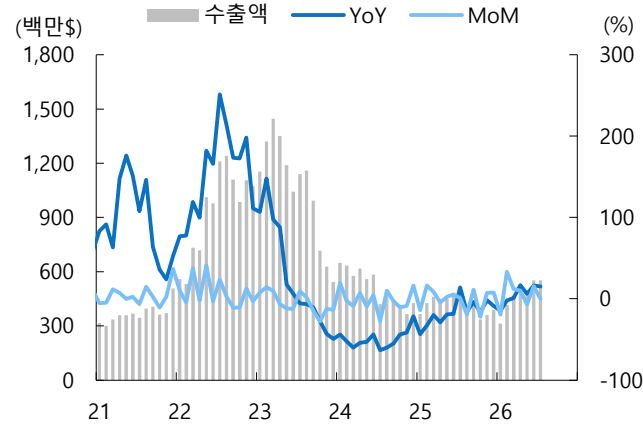
✓ 7월 리튬이온 배터리: YoY +8%, MoM -5%, 양극재: YoY +15%, MoM +0%, 엘앤에프: YoY +39%, MoM -5%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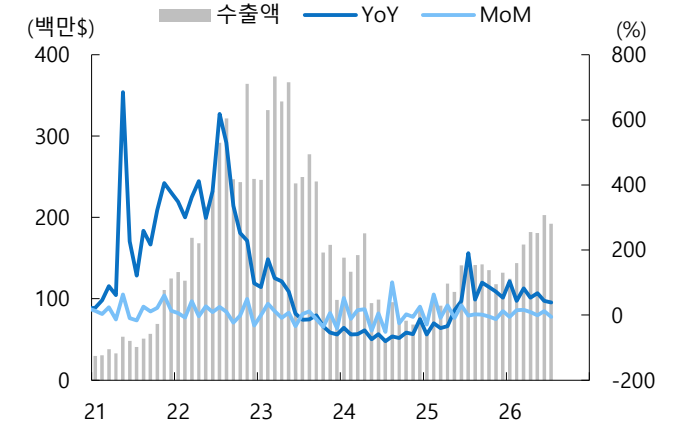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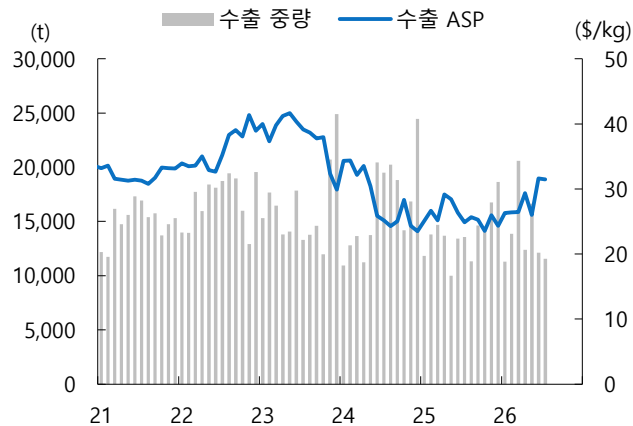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대구 양극재 수출액(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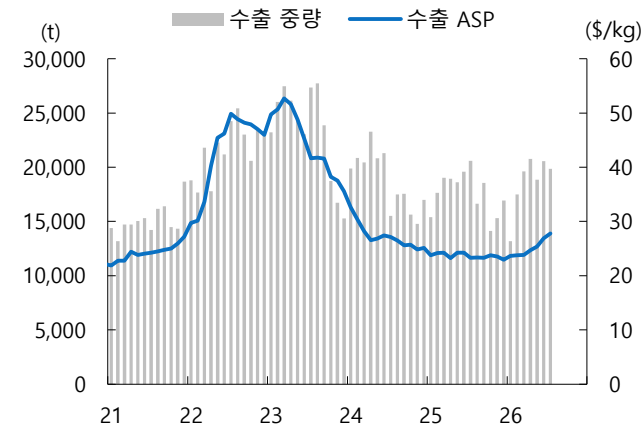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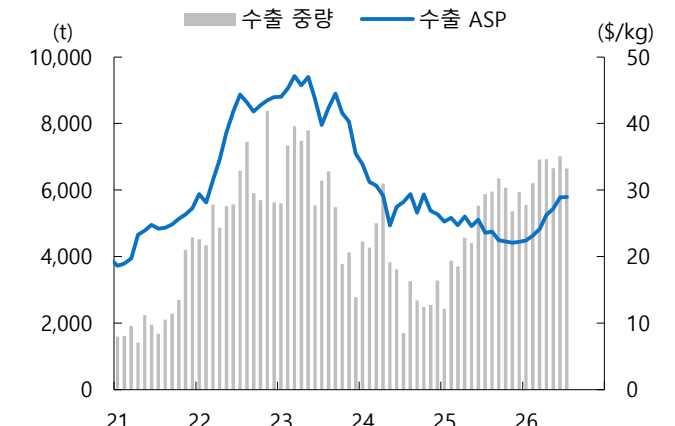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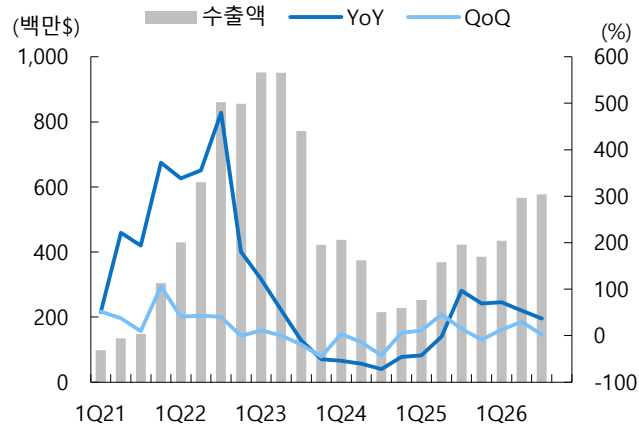
대구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엘앤에프)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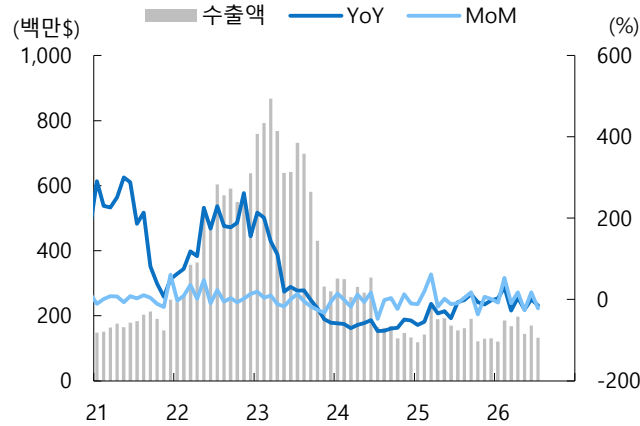
✓ 7월 청주+포항 양극재(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YoY -14%, MoM -22%

대구 양극재 수출액(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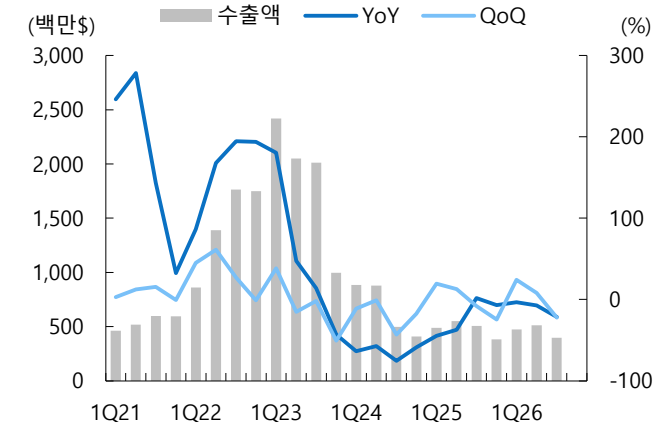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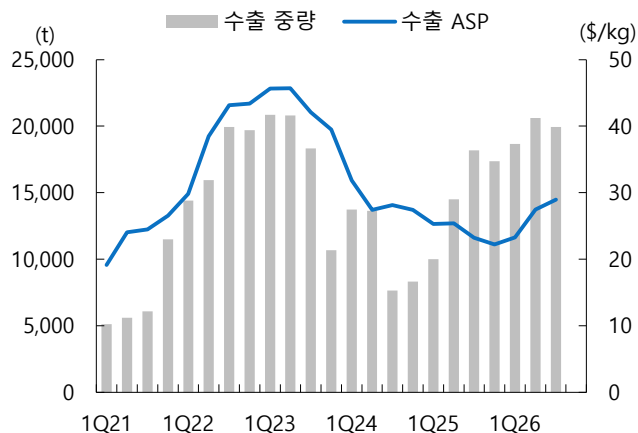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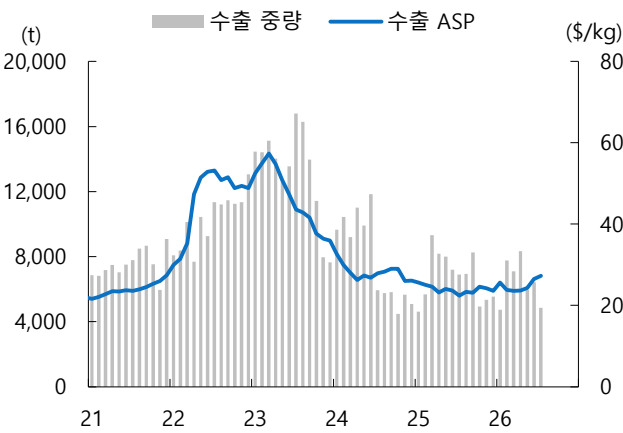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1: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주2: 3Q26은 7월 평균 적용

대구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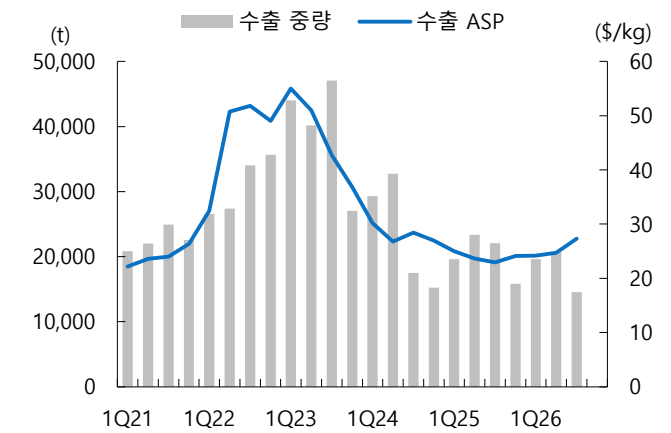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주: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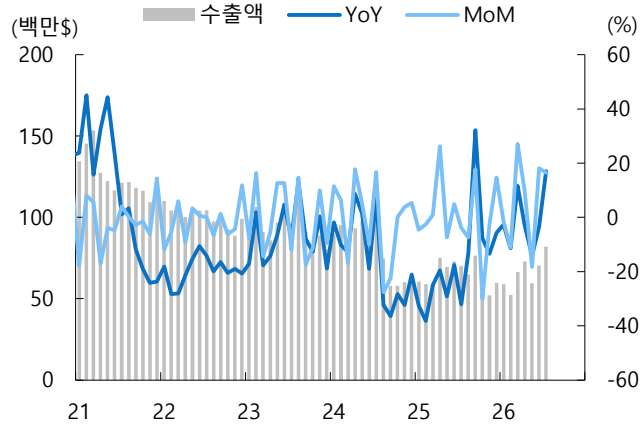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주1: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주2: 3Q26은 7월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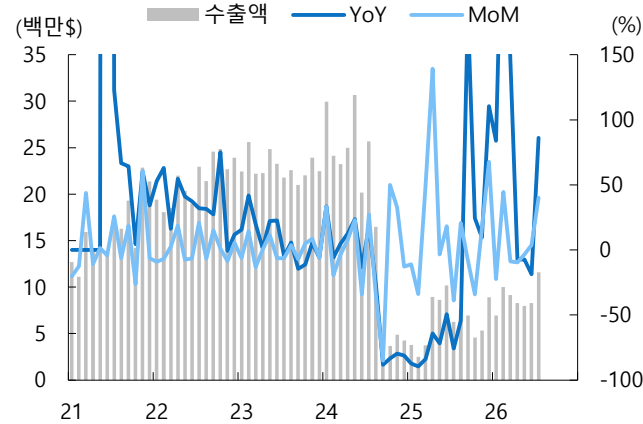
✓ 7월 분리막: YoY +17%, MoM +16%, WCP 분리막: YoY +86%, MoM +40%

분리막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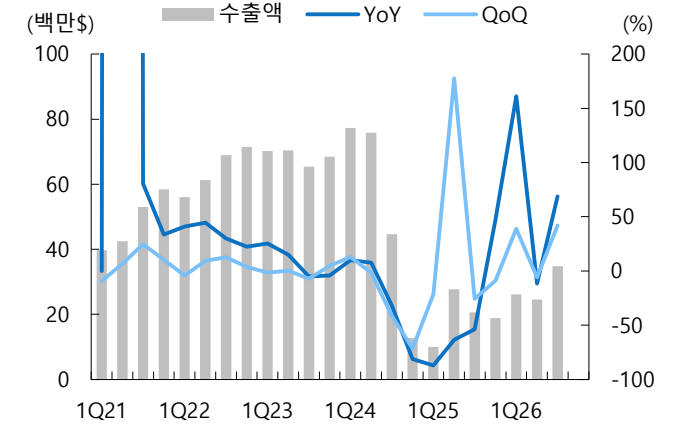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액(W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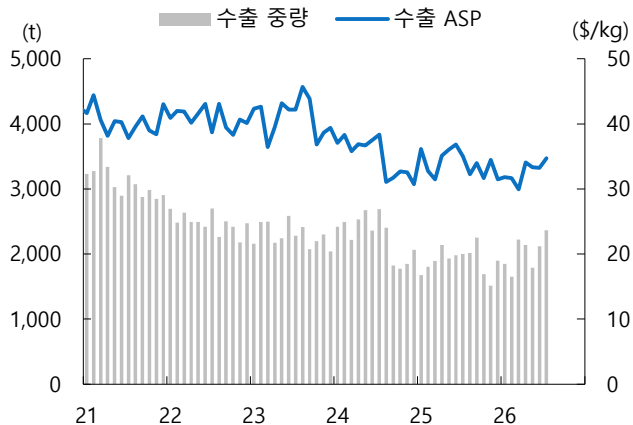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액(W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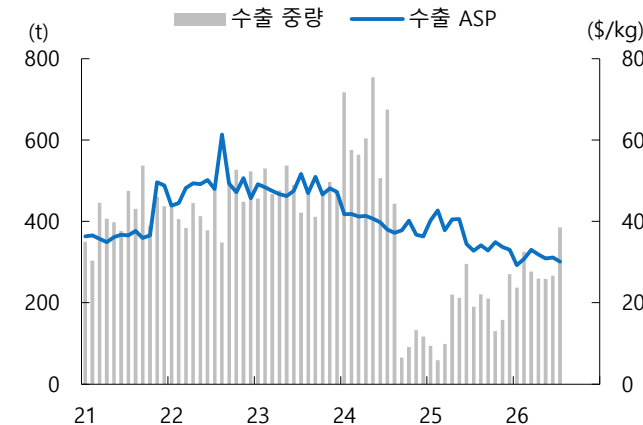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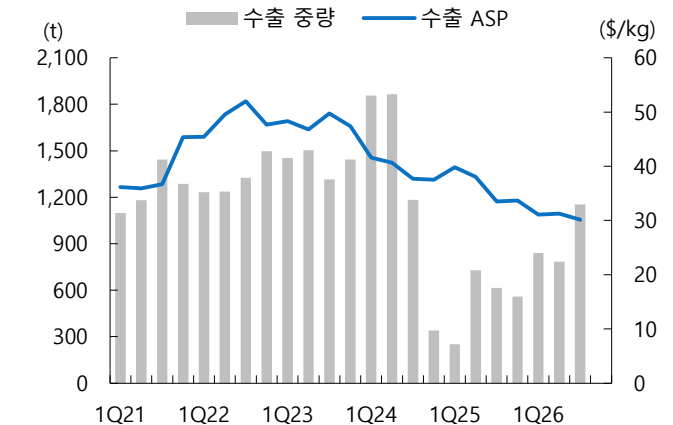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WC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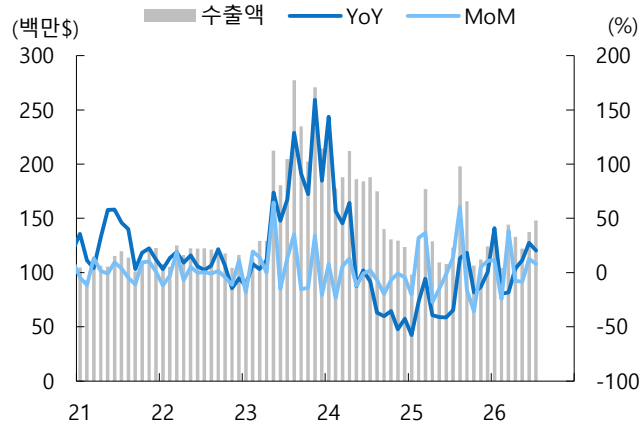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WCP)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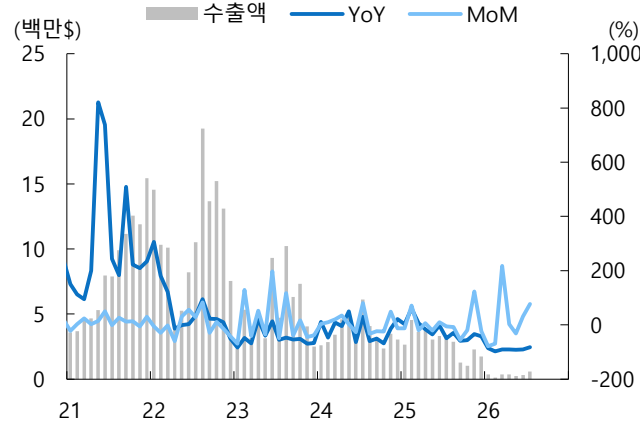
✓ 7월 음극재: YoY +20%, MoM +8%, LiPO_2F_2 (P전해질): YoY -82%, MoM +77%

음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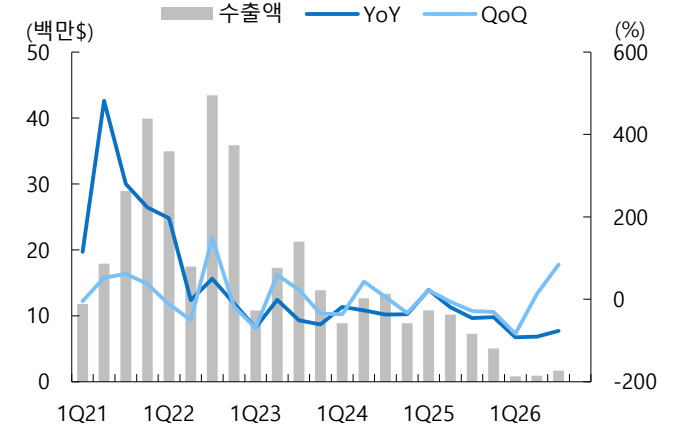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LiPO_2F_2 전해질 수출액(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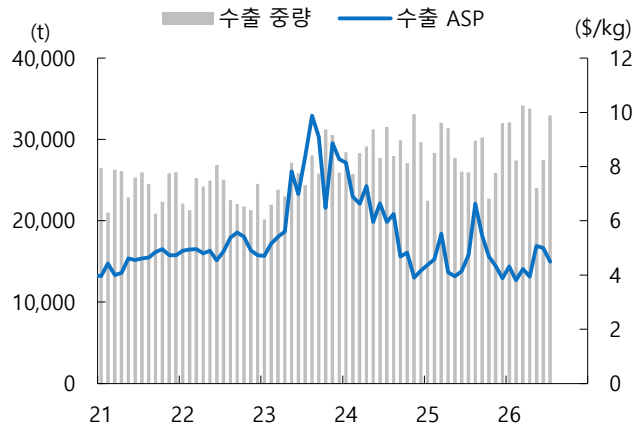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LiPO_2F_2 전해질 수출액(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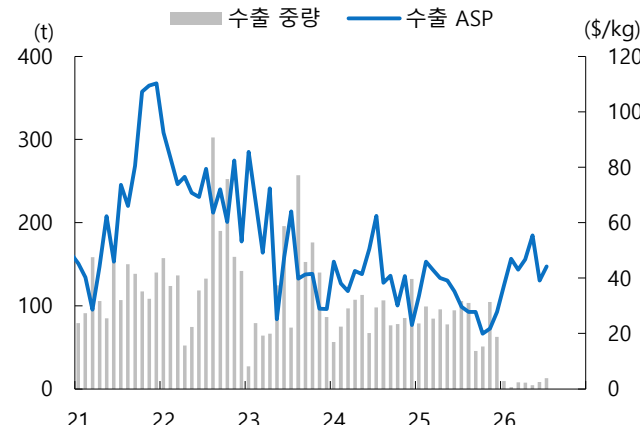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음극재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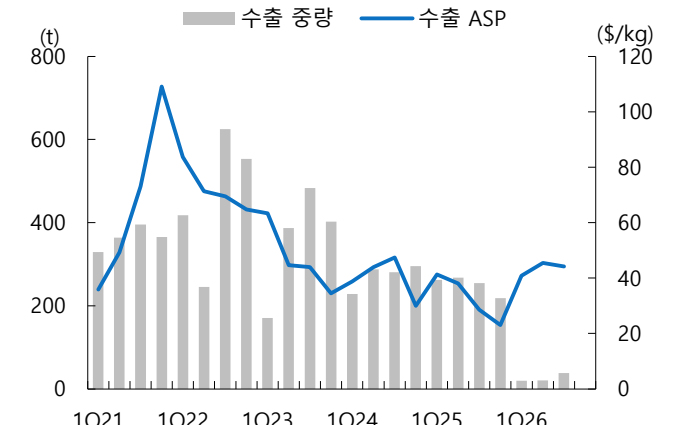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LiPO_2F_2 전해질 수출중량 및 ASP(천보)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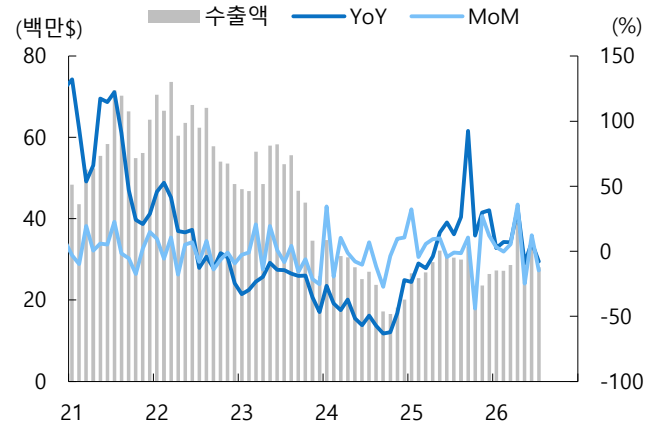
LiPO_2F_2 전해질 수출중량 및 ASP(천보)



자료: KITA, iM증권
주: 3Q26은 7월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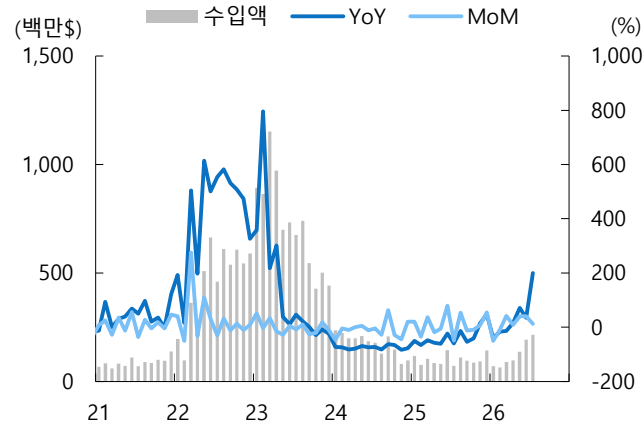
✓ 동박 수출 ASP 데이터센터 및 ESS 수요 증가로 상승 추세, 리튬 수입 ASP 중국 탄산리튬 재고일수 감소로 상승 추세

동박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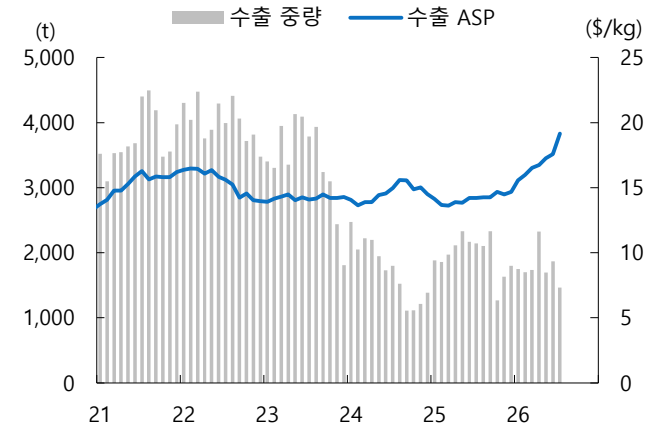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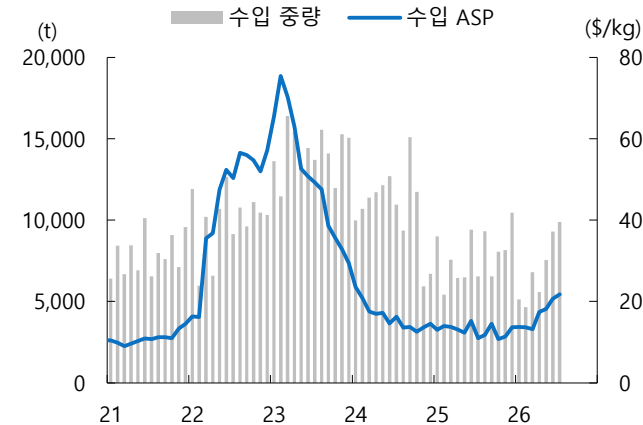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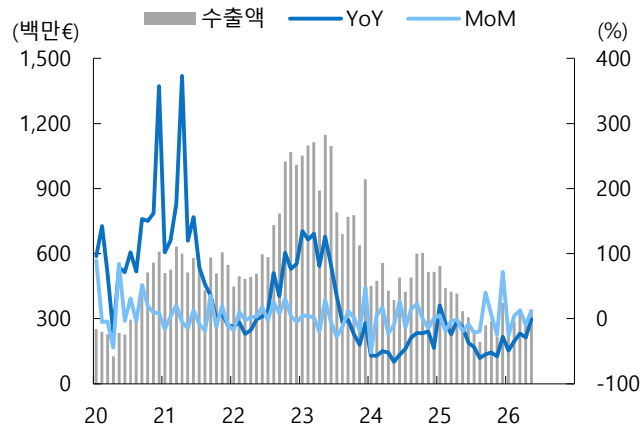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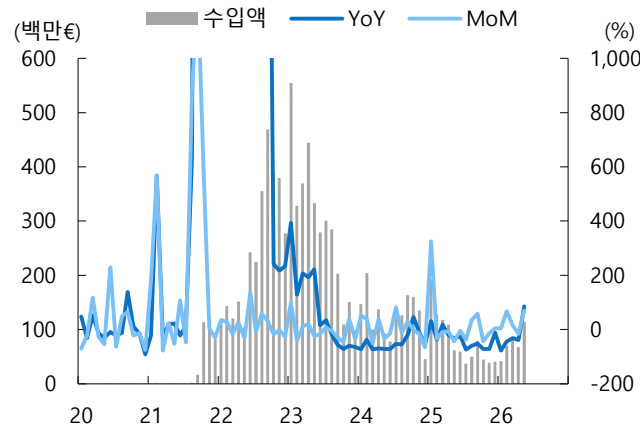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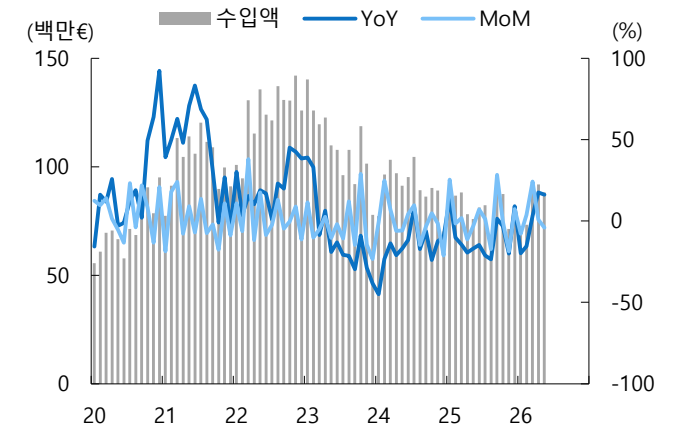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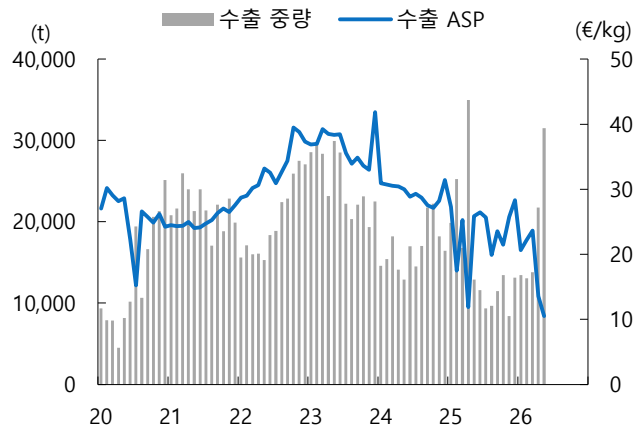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음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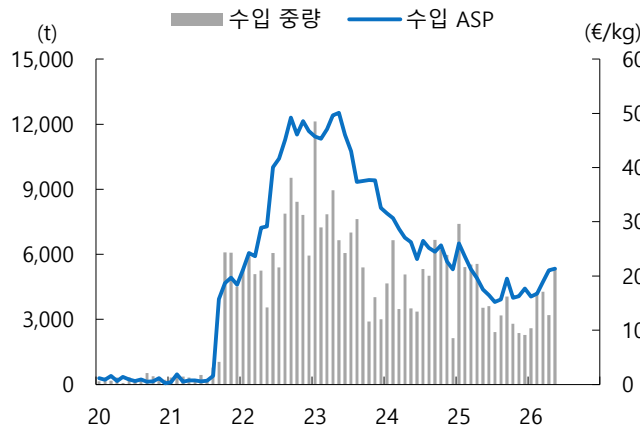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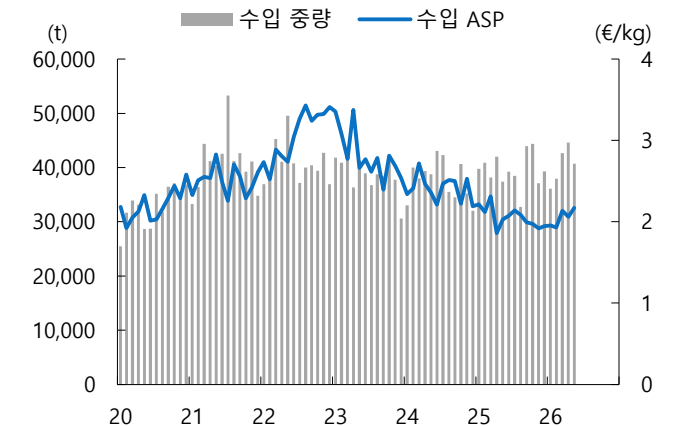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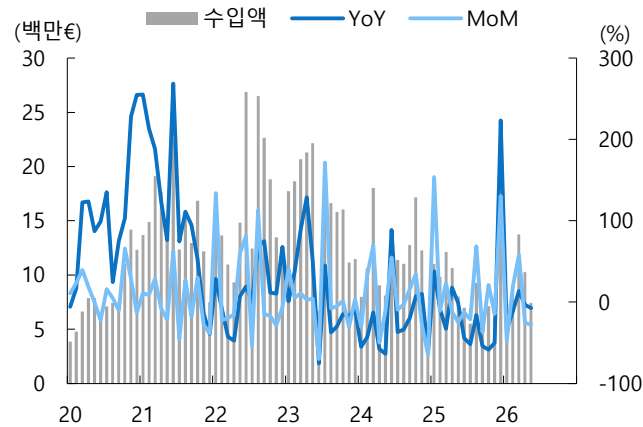
음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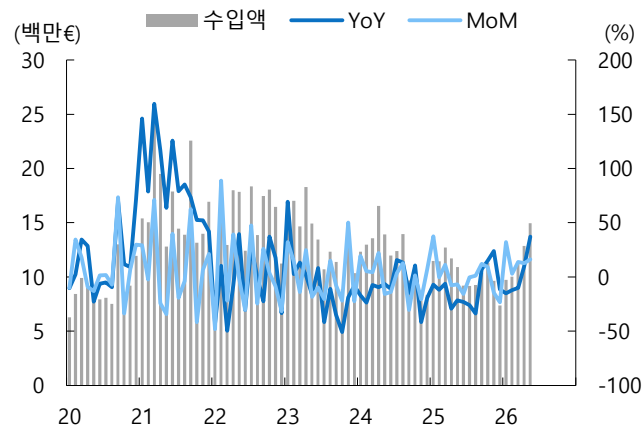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동박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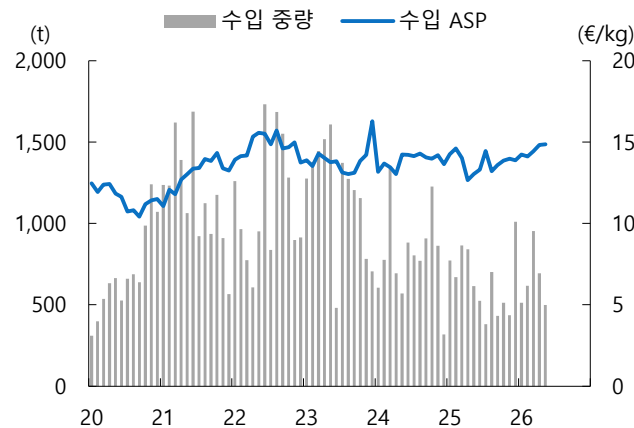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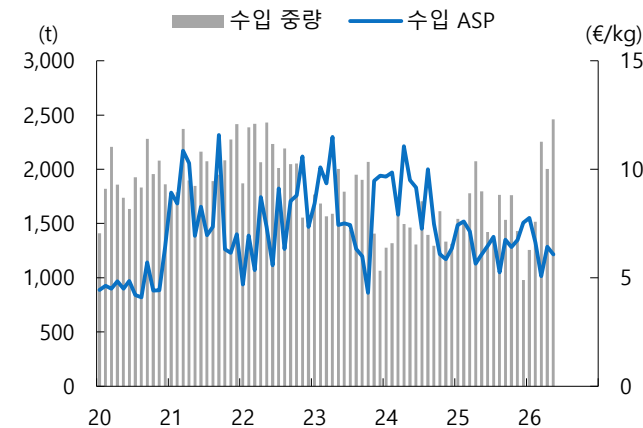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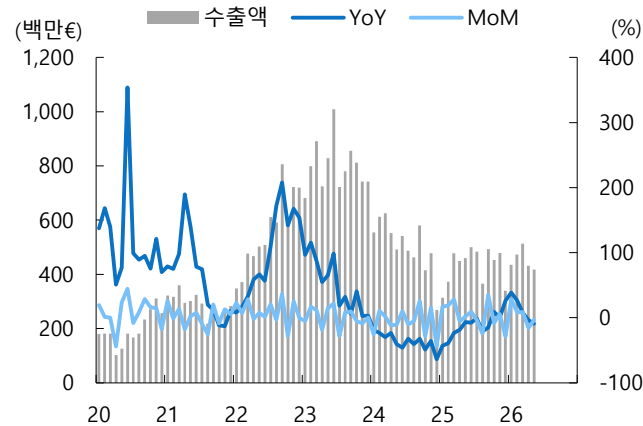
분리막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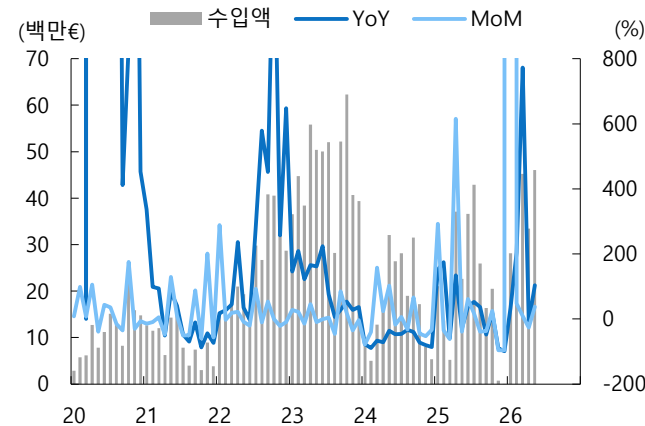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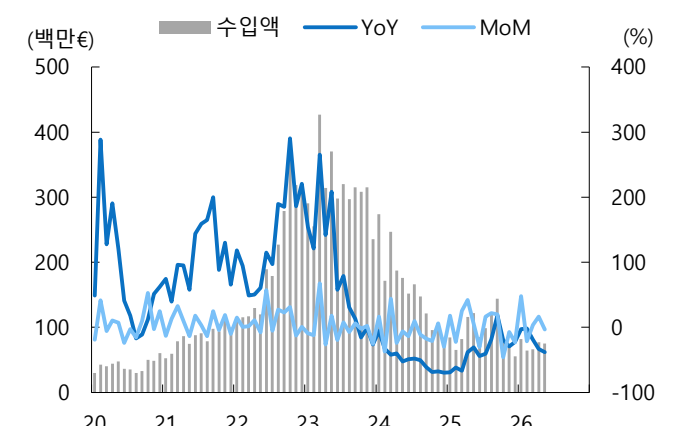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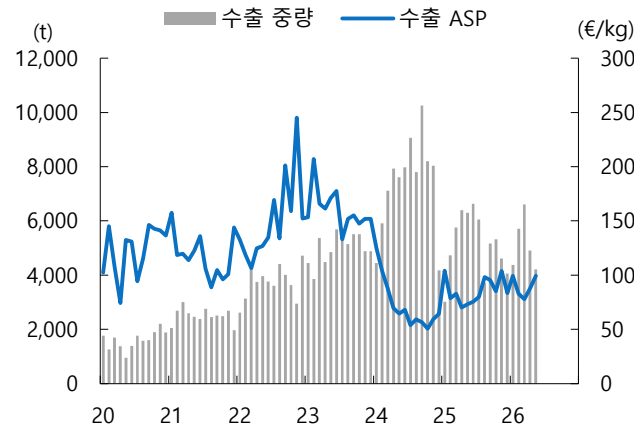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음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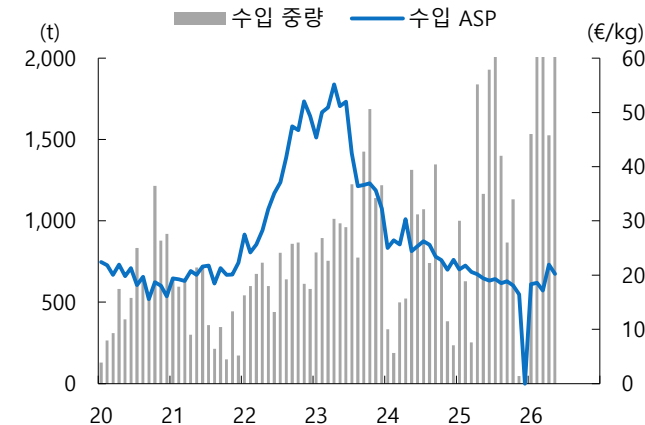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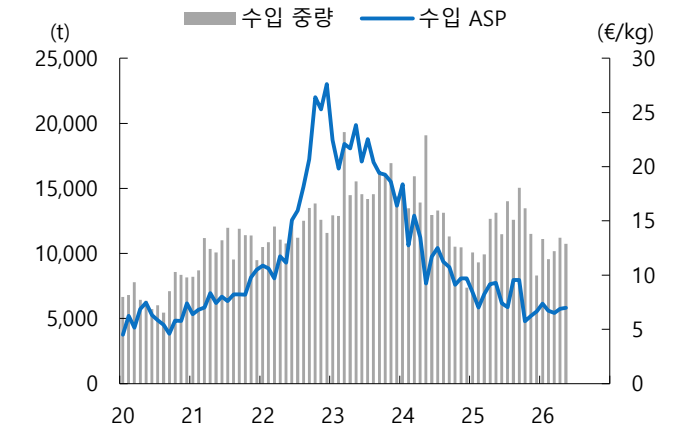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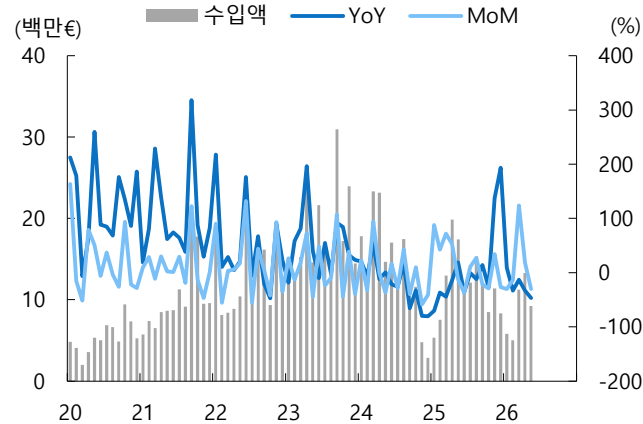
음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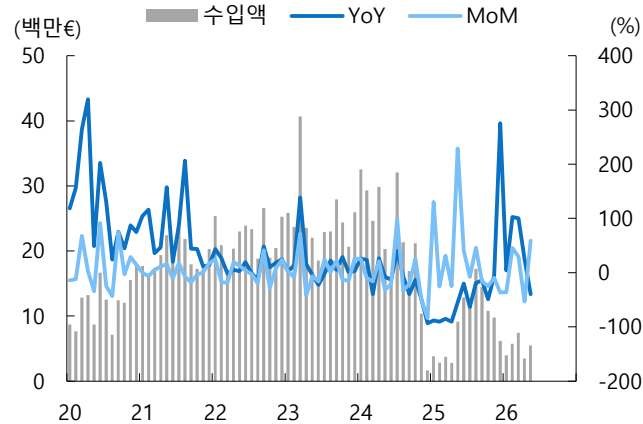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동박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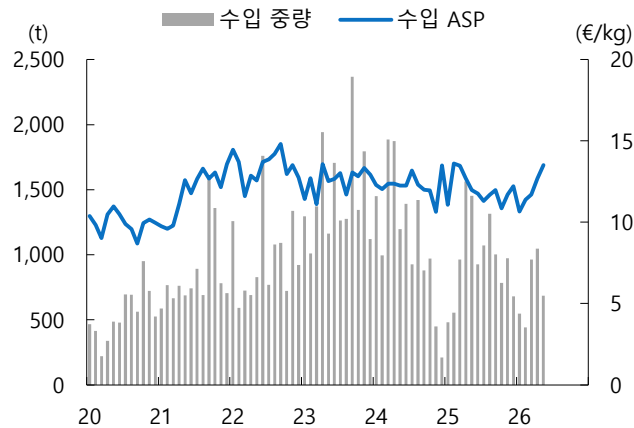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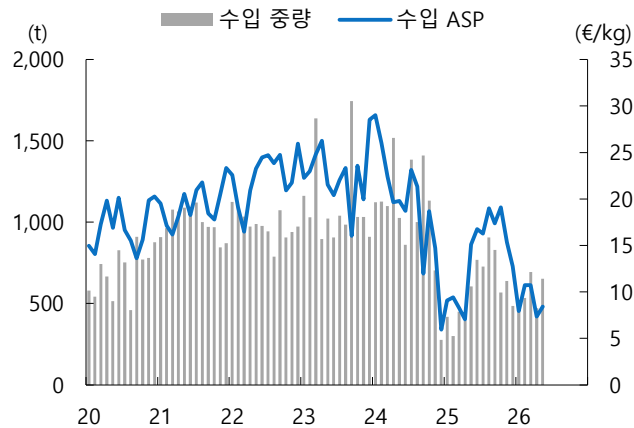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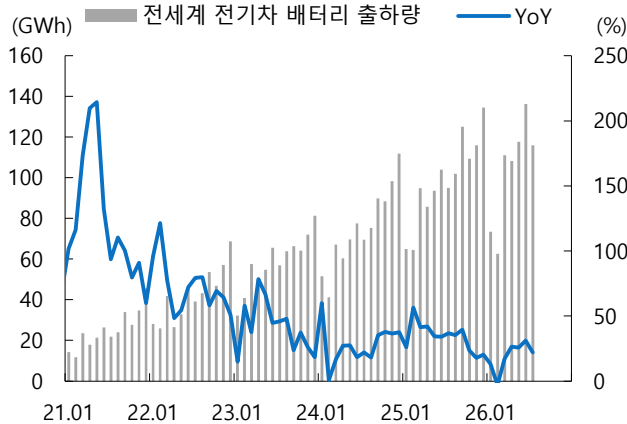
분리막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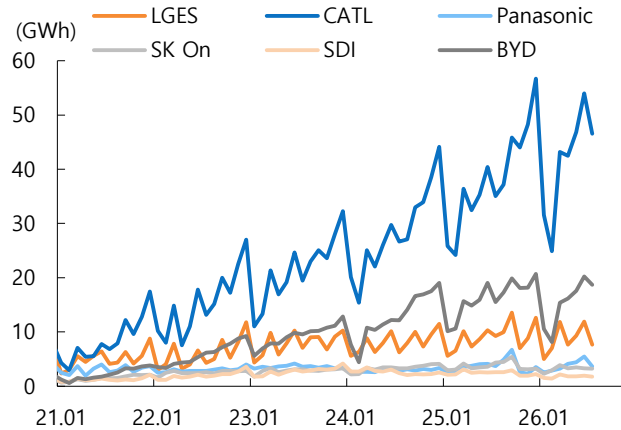
✓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국내 업체들의 출하량 정체 중이나 중국, 유럽, 신흥국 지역 기반의 CATL의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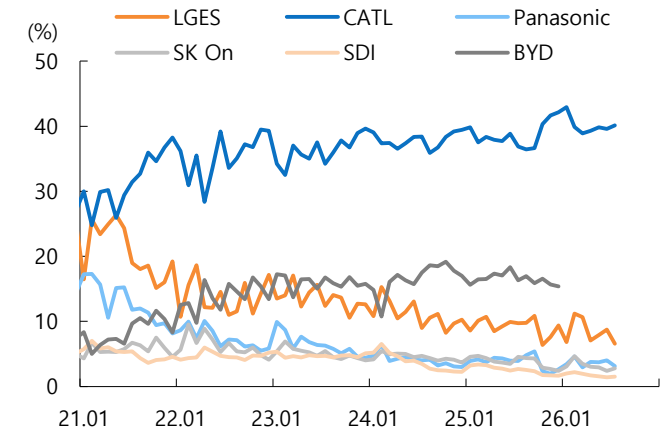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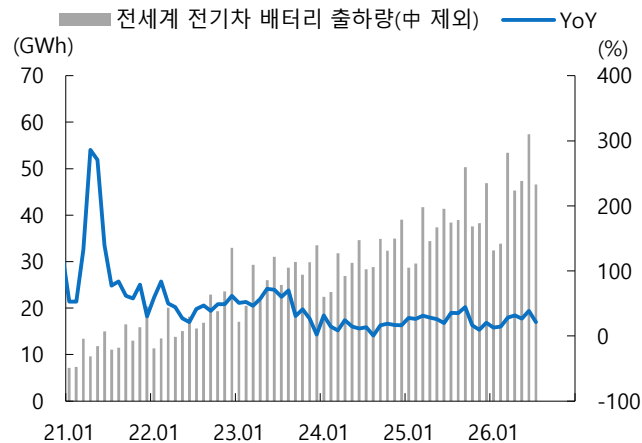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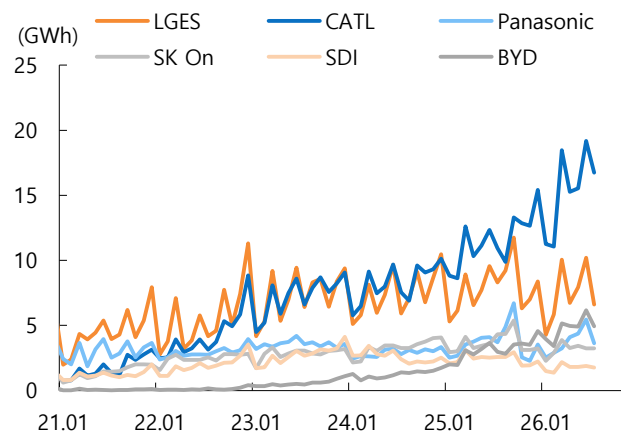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중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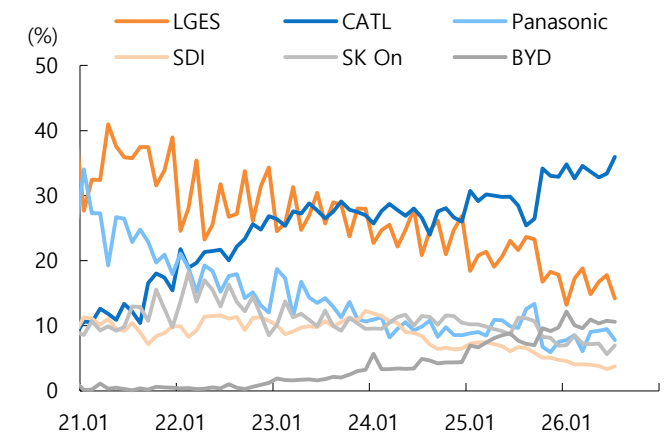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중국 제외)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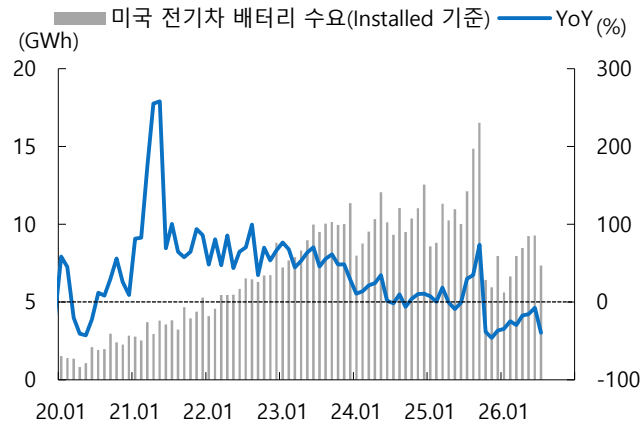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중국 제외)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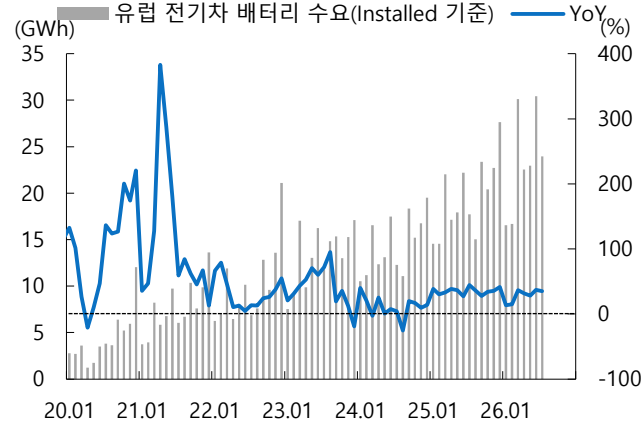
✓ 7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삼원계 점유율 전세계 40%, 중국 20%, 북미 96%, 유럽 82%, 기타 44% 차지

미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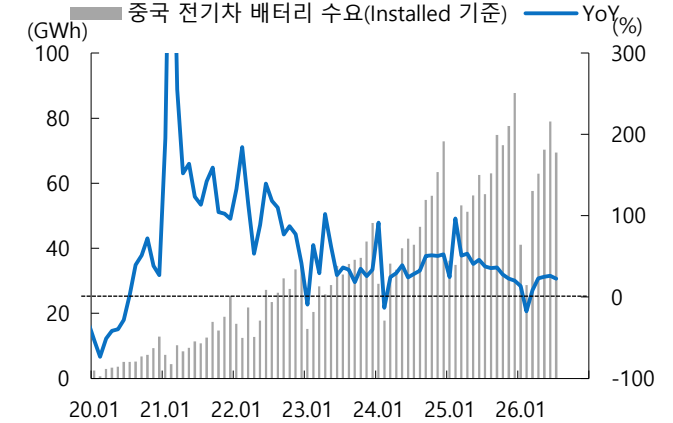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유럽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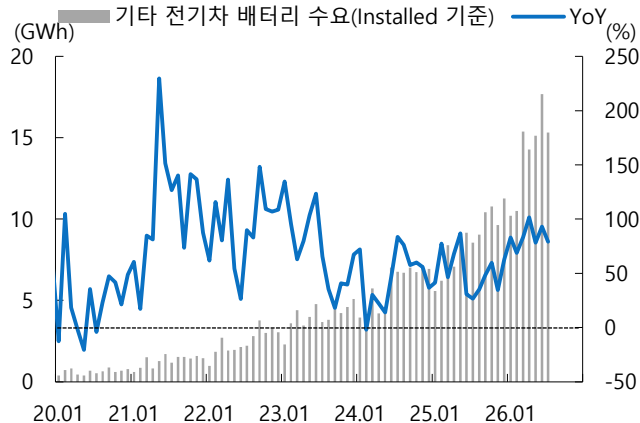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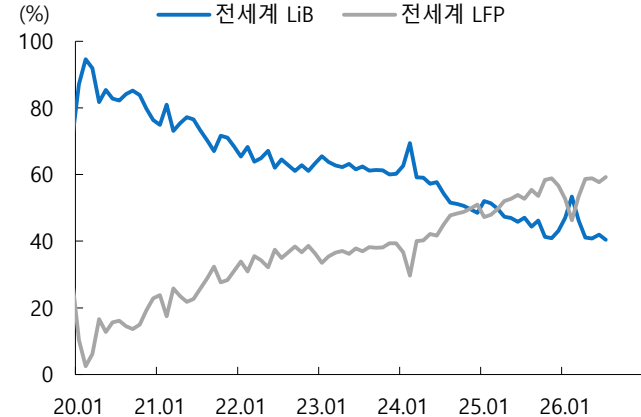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기타 전기차 배터리 수요(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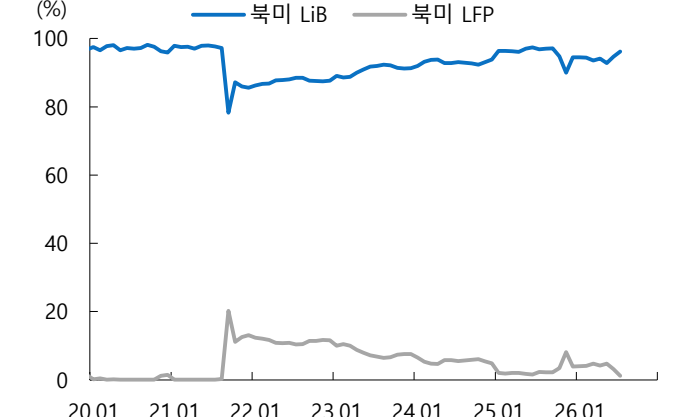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전세계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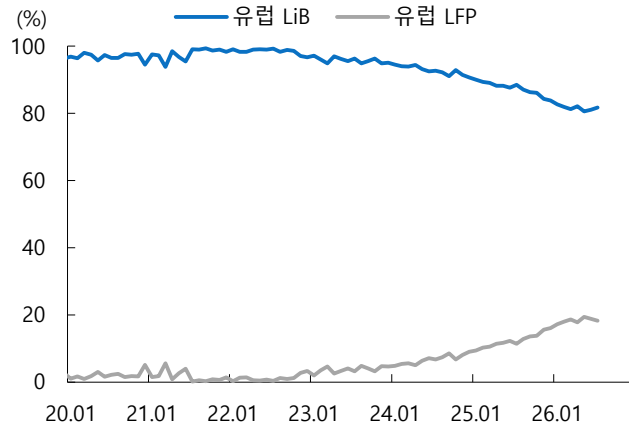
북미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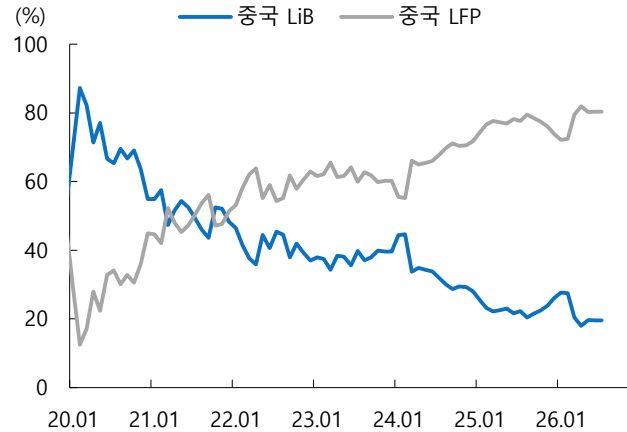
✓ 7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LFP 점유율 전세계 59%, 중국 80%, 북미 1%, 유럽 18%, 기타 55% 차지

유럽 삼원계 Vs. LFP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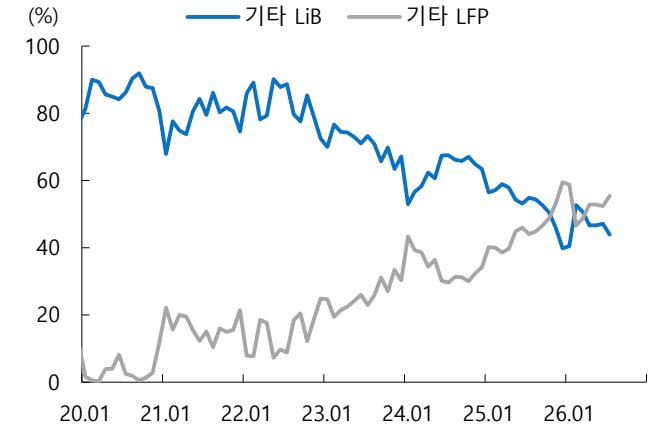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중국 삼원계 Vs. LFP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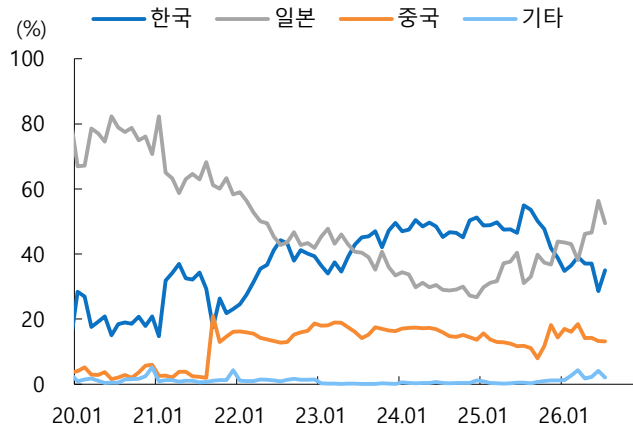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기타 삼원계 Vs. LFP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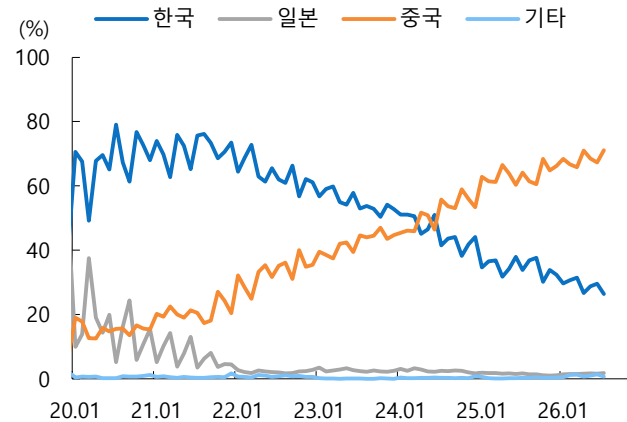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북미 전기차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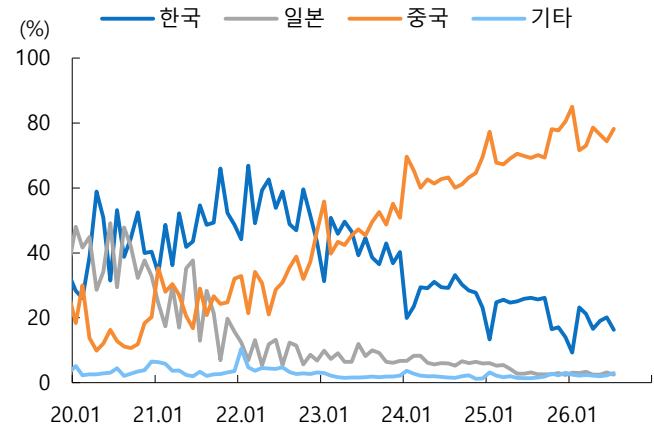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유럽 전기차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신흥국 전기차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국내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소재	업체명	주가 (원) (8/31)	시가총액 (십억원)	P/E (배)			P/B (배)			EV/EBITDA (배)			지배주주순이익 증가			ROE (%)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셀	LG에너지솔루션	370,000	86,580	-79.9	-80.4	-225.2	3.9	4.3	4.2	25.1	22.8	20.4	적전	적지	적지	-4.9	-5.2	-1.9
	삼성SDI	571,000	46,014	29.2	-32.4	67.5	0.8	1.0	2.0	10.1	30.9	21.0	-70%	적전	흑전	3.1	-3.2	3.1
	SK이노베이션	116,900	19,762	-5.3	-4.8	6.8	0.7	0.8	0.8	39.4	-27.8	3.7	적전	적지	흑전	-9.7	-14.4	12.2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186,300	16,571	-51.9	485.0	576.0	3.7	4.1	4.1	-70.2	84.6	61.7	적전	흑전	-91%	-8.0	0.9	0.7
	에코프로비엠	118,200	11,564	-111.4	364.2	815.1	6.3	8.3	6.8	143.0	79.6	83.5	적지	흑전	-96%	-6.3	2.3	0.8
	엘앤에프	134,800	5,484	-7.8	-6.6	-83.6	3.8	5.5	8.4	-12.5	-14.2	23.5	적지	적지	적지	-41.7	-77.0	-10.0
	코스모신소재	40,400	1,342	94.9	-2,692.4	222.6	3.4	2.8	2.5	53.2	80.4	N/A	-35%	적전	흑전	3.6	-0.1	1.2
분리막	SK아이이테크놀로지	16,680	1,364	-6.5	-9.0	-1.5	0.7	0.8	0.9	-21.2	-20.6	-26.1	적전	적지	적지	-10.4	-8.6	-43.3
	더블유씨피	9,650	327	-5.2	-1.3	0.0	0.4	0.2	N/A	-250.0	-15	N/A	적전	적지	N/A	-7.3	-17.4	N/A
전지박	SKC	91,300	4,528	-8.4	-5.1	-13.2	2.9	4.0	7.5	-20.0	-12	73.6	적지	적지	적지	-34.3	-73.3	-45.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35,300	1,849	172.8	-10.0	-47.2	0.8	1.0	1.2	11.9	-12.7	36.8	흑전	적전	적지	0.5	-10.5	-2.4
	솔루스첨단소재	7,850	551	160.6	-9.9	6.5	1.0	1.0	0.9	24.8	-33.4	126.0	-98%	적전	흑전	0.6	-9.2	15.1
전해액/ 전해질	천보	43,200	529	-13.3	-8.6	-21.7	1.0	1.4	1.3	89.0	-40.7	8.3	적지	적지	적지	-8.3	-14.6	-5.9
	후성	12,520	1,343	-7.5	152.1	33.4	1.6	2.4	3.7	-15.0	14.2	13.0	적지	흑전	-24%	-21.7	1.6	11.5
실리콘 음극재	한솔케미칼	203,000	2,191	9.0	17.5	13.3	1.1	2.3	1.8	6.3	11.3	8.9	16%	1101%	-89%	13.5	14.3	14.7
	대주전자재료	91,800	1,442	31.4	47.6	67.0	4.9	3.8	5.0	22.1	25.8	25.3	5167%	460%	-90%	19.3	8.6	8.0
도전재	나노신소재	50,200	616	-385.1	373.0	N/A	2.8	2.4	N/A	168.9	29.4	N/A	적전	흑전	N/A	-0.8	0.7	N/A
	제이오	4,520	145	-49.9	-30.2	N/A	2.3	1.2	N/A	-69.2	404.4	N/A	적전	적지	N/A	-43.0	-47.0	2.1
부품	신흥에스이씨	6,010	232	10.6	-37.8	23.7	0.7	0.6	0.8	5.6	6.0	7.2	-29%	적전	흑전	6.3	-1.6	3.2
단순 평균				-14.2	-70.4	69.4	2.3	2.4	2.9	3.8	35.8	31.6	825%	780%	-78%	-13.9	-12.6	-2.0

전세계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2026.08.31				시가총액 (백만\$)	주가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구분	종목명	국가	통화		증가	1M%	YTD%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전기차	Tesla	미국	USD	1,377,405	348.8	12.1	-22.5	373.1	211.6	20.5	13.5	119.6	100.9	6.5	5.6	4.8	3.6	-28.0	2.7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한국	KRW	64,563	377,500	16.3	2.0	-	-	4.3	4.2	22.7	21.2	-3.8	-1.7	5.7	3.0	적지	적지
	삼성SDI	한국	KRW	34,751	590,000	50.5	118.1	34.5	85.9	1.0	2.0	83.9	23.2	-2.7	2.7	-13.0	1.5	적전	흑전
	SK이노베이션	한국	KRW	15,457	125,100	13.9	23.3	-	9.6	0.8	0.9	15.4	6.2	-5.1	9.1	0.6	6.3	적지	흑전
	CATL	중국	CNY	255,172	363.6	-8.0	-1.0	22.8	17.5	5.0	4.1	15.7	11.5	23.4	24.6	18.9	18.2	31.2	36.5
	BYD	중국	HKD	112,289	87.2	-7.4	-8.5	23.9	17.1	3.4	2.5	7.7	6.5	17.3	14.8	4.5	5.2	158.9	10.0
	Eve Energy	중국	CNY	17,062	52.8	-2.8	-19.8	32.6	15.7	3.2	2.3	22.4	12.2	11.2	15.1	7.7	7.4	10.5	53.0
	Panasonic	일본	JPY	69,169	4,498	5.0	122.3	24.9	42.5	0.9	2.2	9.7	17.0	6.8	5.2	4.7	3.8	-13.4	-22.1
	Gotion High-tech	중국	CNY	7,213	26.7	-6.4	-31.7	29.6	24.0	2.4	1.6	17.3	14.2	10.4	6.7	6.9	4.2	155.1	-35.7
	GS Yuasa	일본	JPY	3,369	5,354	-2.3	42.8	9.0	16.0	1.0	1.5	5.6	8.4	8.1	9.0	8.1	9.1	-8.8	20.9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한국	KRW	13,002	200,000	46.3	6.9	3,668.6	520.7	4.1	4.4	86.0	64.0	1.4	0.7	2.7	3.0	흑전	-27.0
	에코프로비엠	한국	KRW	8,659	121,100	18.7	-17.3	363.3	597.1	8.3	6.7	77.2	71.9	1.5	1.2	4.5	3.4	흑전	-41.1
	엘앤에프	한국	KRW	4,350	146,300	101.8	53.8	-	-	5.4	9.1	-	23.8	-53.8	-5.6	-10.0	6.4	적지	적지
	코스모신소재	한국	KRW	1,010	41,600	29.6	-3.9	84.3	227.3	2.8	2.5	89.2	38.7	-	1.2	0.5	3.7	-	-
	Umicore SA	벨기에	EUR	6,693	23.4	8.4	30.8	11.2	13.1	1.9	2.3	4.5	7.2	16.4	17.8	16.0	19.3	흑전	45.8
	Sumitomo Metal	일본	JPY	20,249	11,115	35.8	74.8	9.8	20.8	0.8	1.6	10.8	18.4	2.5	7.2	2.2	10.1	157.7	245.6
	Ronbay	중국	CNY	2,733	26	-8.1	-27.4	82.9	45.9	3.1	2.3	48.1	19.6	-1.3	4.2	0.0	2.5	-84.8	775.0
	Hunan Yuneng	중국	CNY	7,821	62	-2.1	-4.1	38.5	10.4	3.8	2.8	16.7	7.8	10.7	25.9	4.8	8.7	137.9	220.4
	Wanrun New Energy	중국	CNY	1,485	79	5.2	4.9	-	-	1.8	-	38.9	-	-	-	-2.8	-	-	-
	Baoan	중국	CNY	2,713	7.1	-10.2	-28.2	125.2	-	2.5	-	13.3	-	-	-	9.7	-	-	-
음극재	Easpring Material	중국	CNY	3,265	40.3	-3.1	-30.3	47.7	20.0	2.1	1.4	26.0	12.0	5.6	7.1	8.3	6.2	55.8	38.9
	대주전자재료	한국	KRW	1,063	92,600	30.8	44.5	46.6	62.9	3.8	5.1	32.9	30.4	9.8	8.9	8.7	9.5	-42.3	3.0
	나노신소재	한국	KRW	458	51,100	29.2	2.2	367.6	75.0	2.4	2.5	31.8	24.2	1.9	3.3	6.0	8.5	흑전	76.0
	Hitachi Ltd	일본	JPY	154,510	5,438	3.2	10.9	27.7	30.8	3.4	4.1	13.9	14.8	11.1	13.5	9.6	11.2	4.0	26.8
	Mitsui	일본	JPY	10,556	29,345	-5.2	66.4	11.1	22.4	2.4	4.3	6.8	11.7	18.7	22.3	9.2	15.7	-12.5	32.2
	Ningbo Shanshan	중국	CNY	3,983	11.9	-6.4	-11.8	64.3	20.0	1.4	1.1	13.7	11.4	-	5.8	6.3	7.3	-	-
	Sangtai Tech	중국	CNY	3,160	58.3	5.5	-5.0	23.6	19.0	3.2	2.6	14.8	14.1	14.2	14.3	16.4	13.3	20.6	10.6
	BTR	중국	CNY	3,477	20.5	-4.2	-36.6	41.5	18.7	2.9	1.7	15.6	10.8	-	9.2	10.4	6.9	-	-
	XFH Tech	중국	CNY	483	27.2	8.0	-8.9	65.5	-	1.6	-	21.2	-	-	-	6.1	-	-	-
	Tokai Carbon	중국	JPY	2,452	1,811	17.8	86.9	10.3	22.3	0.7	1.2	6.4	8.5	5.3	4.1	8.0	8.2	흑전	5.1
음극재	Nippon Carbon	중국	JPY	388	5,240	10.7	18.7	10.1	22.1	0.9	-	6.8	-	-	-	13.0	10.9	44.6	-55.5

전세계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2026.08.31				시가총액 (백만\$)	주가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구분	종목명	국가	통화		증가	1M%	YTD%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전해액	솔브레인	한국	KRW	1,950	343,000	36.4	30.9	25.5	16.2	1.9	2.2	9.5	9.6	9.2	14.4	14.4	17.3	-21.7	76.9
	Tinci	중국	CNY	11,054	36.4	2.0	-21.3	65.3	11.5	5.2	3.3	33.6	8.5	8.6	29.7	9.8	23.1	138.8	429.6
	Capchem	중국	CNY	7,359	65.6	4.8	25.2	35.9	22.9	3.6	3.9	24.4	18.2	10.9	17.8	13.6	15.8	22.9	85.1
	Stella Chemifa	일본	JPY	440	5,420	4.8	23.5	17.0	21.5	1.1	1.4	6.4	8.6	7.7	6.6	12.5	12.5	20.6	-13.4
전해질	천보	한국	KRW	378	42,250	36.3	-14.2	-	-	1.4	1.3	32.0	6.7	-6.2	-4.2	5.0	-4.6	적지	적지
	후성	한국	KRW	1,029	13,130	45.9	74.4	150.6	35.0	2.4	3.8	16.3	14.3	-3.6	9.0	5.4	11.1	적지	흑전
전지박	SKC	한국	KRW	3,263	90,000	26.2	-9.3	-	-	4.7	3.6	-	52.2	-22.7	-25.1	-12.6	-2.5	적지	적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한국	KRW	1,441	37,650	38.9	22.8	231.0	-	1.0	1.2	86.9	38.9	-9.2	-2.0	-20.3	-5.2	적전	적지
	솔루스첨단소재	한국	KRW	412	8,020	25.3	9.7	146.9	21.4	0.7	0.9	2,587.8	208.9	-9.5	7.8	-11.6	-14.0	적전	흑전
	Furukawa Elec	일본	JPY	17,796	4,020	27.8	301.6	9.7	53.7	1.7	7.3	9.2	31.7	8.8	14.8	3.6	4.4	-13.9	83.7
부품	상아프론테크	한국	KRW	177	15,140	20.0	-2.4	35.8	22.0	1.2	1.2	15.7	10.6	2.5	5.4	3.5	5.0	-22.3	124.1
	신흥에스이씨	한국	KRW	173	6,130	47.4	26.7	9.1	44.7	0.5	0.8	7.2	7.1	-1.7	3.3	0.9	3.9	적전	흑전
리튬	Ganfeng Lithium	중국	CNY	15,462	53.9	8.4	-14.3	78.6	12.8	2.9	2.1	30.4	10.8	1.8	16.4	4.8	21.8	흑전	1,469.0
	Albemarle	미국	USD	16,209	137.4	16.8	-2.9	-	11.8	2.3	1.6	65.2	6.7	-0.7	13.5	-3.4	22.5	적지	흑전
	Tianqi Lithium	중국	CNY	12,107	49.9	10.0	-9.9	197.8	12.4	2.1	1.7	24.1	5.2	1.7	15.4	34.3	65.1	흑전	800.9
	Sociedad Quimica	칠레	CLP	21,666	68,106	22.3	12.5	32.6	-	3.4	-	16.2	-	-	-	23.2	-	-	-
	FMC	미국	USD	1,419	11.3	5.8	-18.3	3.3	8.5	0.8	0.8	6.8	8.1	8.7	8.5	17.0	13.4	7.6	-54.8
코발트	Huayou Cobalt	중국	CNY	11,149	39.6	-0.9	-42.0	19.5	9.3	2.6	1.4	13.5	8.8	14.6	15.1	11.3	11.2	29.5	31.5
	Molybdenum	중국	CNY	57,977	19.1	-2.4	-4.7	21.5	12.7	5.2	3.8	9.9	6.3	25.1	31.9	16.5	22.2	47.9	60.5
	Hanrui Cobalt	중국	CNY	1,588	34.5	1.4	-23.8	55.1	-	2.6	-	25.1	-	-	-	5.0	-	-	-
분리막	SKIET	한국	KRW	963	16,110	22.0	-35.8	-	-	0.8	0.6	-	-	-5.3	-16.3	-74.6	-113.1	적지	적지
	WCP	한국	KRW	244	9,860	57.0	57.3	-	-	0.2	0.4	-	59.1	-14.4	-8.0	-101.1	-17.9	적지	적지
	Yunnan energy	중국	CNY	7,783	53.3	1.4	-5.9	377.6	23.8	2.2	1.9	23.9	11.6	0.6	8.0	2.0	15.4	흑전	1,499.3
	Asahi Kasei	일본	JPY	14,066	1,644.0	-4.6	18.4	11.9	15.2	0.9	1.1	6.1	7.9	6.2	7.6	6.7	7.4	-13.8	28.3
	Toray	일본	JPY	12,134	1,287.5	11.2	26.2	19.3	23.9	0.8	1.1	10.0	10.4	5.1	4.7	5.3	4.8	17.8	-6.7
	Sumitomo	일본	JPY	5,961	572.2	9.8	28.4	12.0	15.2	0.7	1.0	6.2	7.2	2.7	6.7	6.8	7.2	-20.3	99.7
	Senior Tech.	중국	CNY	3,499	15.0	12.8	-1.4	190.6	31.3	2.0	2.1	29.4	15.7	2.2	6.7	7.4	14.2	-36.7	181.3
	Cangzhou Mingzhu	중국	CNY	1,082	4.4	1.6	-7.5	51.6	-	1.6	-	24.2	-	-	-	5.0	-	-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의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